

INVITATION
TO THE
ARTS

APRIL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4 vol.292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공연장

이태리 오페라의 대명사 라 스칼라극장 Teatro alla Scala

공연화제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SPRING IN 바다의 봄, THE SEA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비순 최영진

지휘 최수열

Program

- 멘델스존 「고요한 바다와 행복한 항해」 서곡 작품27
F. Mendelssohn "Meeresstille und glückliche Fahrt" Overture op.27
- 로시니 바순 협주곡 「실험적 협주곡」
G. Rossini Bassoon Concerto "Concerto da Esperimento"
- 슈만 교향곡 제1번 내림나장조 「봄」 작품38
R. Schumann Symphony No.1 in B^b Major "Spring" op.38

2016. 4. 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 장 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할인정보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전화예약시)
20% ▶ 정기회원 / 예술인패스 소지자 (전화예약시) / 대학생 및 민24사이하 (전화예약시)
※ 단체(10명이상)할인 10%~30%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빙향 100m "7번가 피사"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고성현 & OPERA STARS

Bar. Ko Seng-Hyoun

Sop. Serena Daolio

Ten. Diego Cavazzin

M.Sop. Patrizia Scivoletto

CONDUCTOR
Diego Crovetti

ORCHESTRA
KOREA WIND CONSORT



2016. 4.15 Fri 19: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K.S.H ART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 V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공연문의 051) 607-6042

황금의 목소리, 유럽을 정복한 고음악계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임선혜 리사이틀

피아노 헬무트 도이치

특급 성악가와 특급 반주자의 만남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에 이어 세계 정상급의 한국소프라노의 계보를 잇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성악 반주의 거장 피아니스트 헬무트 도이치가 들려주는 예술가곡여행은 여러분의 봄밤을 무한한 감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F.Schubert R.Strauss G.Mahler J.Rodrigo F.J.Obadors J.Turina J.Gurida C.Guastavino

2016. 4. 17 SUN 6: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강동병원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단체예매 및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전화 예매시 10% 할인



시마노프스키 콰르텟

SZYMANOWSKI QUARTET



Piano/ 김태형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6. 4. 20수 PM 8:00

하이든 | 쇼스타코비치 | 시마노프스키 현악4중주
슈만 피아노5중주

Tchaikovsky

PROGRAM

김동학 밝은 달빛 속에...

Ferdinando Carulli Concerto for Flute, Guitar and Orchestra in G major

Pyotr Ilyich Tchaikovsky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지휘자 윤상운



플루티스트 김영



기타리스트 고충진



작곡자 김동학

명품콘서트 예술감독 김원명

2016. 4.21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INTERPARK 인터파크 1544-1555 총제작 | 김일택 총괄기획 | 공영식 홍보 | 이규한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예술에의 초대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불,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 10 4월 공연 캘린더
- 12 반갑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
- 14 세계의 공연장
이태리 오페라의 대명사 라 스칼라극장 Teatro alla Scala
- 18 축제속으로 고고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 20 그곳에 가면
'Book & Gallery, Antique' 문화공간 동넵
- 22 테마가 있는 여행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2 새로 나온 음반
- 53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4월호 통권 292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3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지휘 최수열 ©박재형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한국 지휘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최수열이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4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에서는 객원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KBS 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전용우가 객원악장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수니스트 최영진이 협연을 맡아 멘델스존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과 로시니 바순 협주곡 '실험적 협주곡', 슈만 교향곡 제1번 '봄'을 들려준다.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2만원 S 1만5천원 A 1만원 B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3151

지휘자 최수열은 지난 1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사퇴한 지휘자 정명훈을 대신해 '말러 교향곡 제6번'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첫 정기연주회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지휘, 음악애호가들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지휘과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친 후 도독, 독일학술교류처(DAAD) 예술분야 장학생으로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최수열은 2007년 프랑스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2009년 스페인 까다퀘스 국제지휘콩쿠르 결선에 진출한 바 있으며 2010년 독일의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의 아카데미(IEMA) 지휘자 부문에 동양인 최초로 선발되어 1년 동안 부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수열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의 위촉으로 2011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노바'의 어시스트 지휘자로 참여해왔으며 지난 2013년 9월에는 차세대 지휘자 발굴을 위한 정명훈의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발탁됐다.

그동안 도전적인 프로그래밍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으로 주목받아온 최수열은 특히 2013년부터 성남아트센터가 주최하는 마티네콘서트 음악감독을 맡아 기존의 브런치 콘서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인 레퍼토리로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최수열은 지난 2012년 '월간 객석'으로부터 '21세기 음악계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을 지녔다'는 평가 함께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에 지휘자로서는 최초로 선정됐으며, 2014년 포브스 선정 '코리아 2030 파워리더 30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객원악장 전용우는 음협 콩쿠르, 중앙일보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바 있으며, 한국음악협

회 제정 '1997 한국음악상', 음악비평가그룹 '오늘의 음악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러시아 필하모닉, 헝가리 사바리아 필하모닉, 일본 나리타 교향악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전용우는 J.M.World Orchestra, World Orchestra for Peace 한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Asia Philharmonic Orchestra 공동악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용우는 현재 서울마스터즈 4중주단 리더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멘델스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은 멘델스존이 남긴 7개의 서곡 중 4번째 곡으로, 극 내용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관현악용 서곡이다. 이탈리아 여행 중에 얻은 아이디어와 괴테의 시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곡한 곡으로, 죽음처럼 고요한 휴식의 정적에 쌓인 바다와 안개가 걷히고 즐거운 항로 끝에 육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내용으로 한 로맨틱한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인 로시니의 바순 협주곡 '실험적 협주곡'은 로시니가 볼로냐 음악학교 교장으로 이탈리아에 머물렀던 기간인 1842년에서 1845년 사이 그의 제자인 유명한 바순 주자 니차레노 가티를 위해 쓰여진 곡으로, 당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하나의 악기로만 여겨지던 바순을 독주악기로 내세운 대표적인 바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곡 전반에 걸쳐 매혹적인 악상과 유머감각이 가득하며, 특히 바순의 목직하면서도 따뜻하고 깊이있는 음색을 느껴볼 수 있다.

협연자 최영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 독일 하노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 부수석, 노르웨이 트론하임 심포니 수석,



바순 최영진

NHK 심포니, 뉴 재팬 필하모닉, 오사카 필하모닉, Ensemble of Tokyo 객원수석으로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아음악콩쿠르 바순부문 1위없는 2위(1995년, 1997년), 동아음악콩쿠르 바순부문 1위(1999년) 등 동아음악콩쿠르 최초 3회 연속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최영진은 이밖에도 부산음협콩쿠르 바순부문 1위(1991년), 부산음악콩쿠르 바순부문 1위(1993년), Bayreu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Pacem in terriis' 목관부문 바순 1위(2001년)에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슈만 교향곡 제1번 '봄'. 낭만파 시인 아돌프 뵘트거의 '봄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교향곡 '봄'은 봄의 서막인 희망에 찬 1악장과 따뜻한 봄의 숨결을 연상케 하는 로맨틱한 2악장, 봄의 신비스런 환상이 감도는 4악장 등 아름다운 선율로, 바다와 젊음의 도시 부산에서 맞이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전해준다.

04

CULTURAL SCHEDULE

2016 APRIL

SUN

MON

TUE

전시실

제1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 대전시실

4월 12일(화)-4월 16일(토)
 문 의 : 사무국장 이상희 010-4925-8500
 *시상식 4월 16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삼여수묵회전 - 중전시실

4월 16일(토)-4월 19일(화)
 문 의 : 박재광 010-3862-1222

제34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미술대상전 - 대·중전시실

4월 22일(금)-4월 24일(일)
 문 의 : 박효덕 010-6269-7456
 *시상식 4월 24일(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대전 - 대·중전시실

4월 30일(토)-5월 2일(월)
 문 의 : 이춘구 010-8463-2300
 *시상식 4월 30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3

4

5

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 연극제' 14:00, 15:00, 16:00, 18:3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누리에 '구멍 속 구멍'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누리에 '구멍 속 구멍'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사계 '하녀들'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0

11

12

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이야기 '당금' 18:00 균일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이야기 '당금' 20:00 균일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누리에 '수업' 20:00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누리에 '수업' 20:00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7

18

19

대 **소프라노 임선혜 리사이틀 with 헬무트 도이치** 18:00 6만원·5만원·4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배우창고 '급제록' 18:00
 시상 및 폐막식 19:30 균일 2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중 소리나 피아노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4

25

26

중 무용의 날 특집 '무용가와 그 무용' 18:00
 초대/로고현대무용단(200-7822)

소 제1회 신문법 제자 고법발표회 '홍보기' 16:00
 초대/(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583-7958, 010-9231-7066)

중 제2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아 피아노앙상블의 밤 19:30
 초대/최지은(010-2333-2544)

중 무지카비바 제25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시대로의 여행' 19:30
 균일 3만원/무지카비바(010-2888-0292)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십시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2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19:30 개막축하공연 '한 여름밤의 꿈'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6:00, 17: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Tour del Lago Puccini Festival 아티스트 초청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3 테너 콘서트' 19:00 8만원·5만원·3만원 솔로페라단(1544-3759)</p>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 '한 여름밤의 꿈' 18:00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16:00, 17: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6	7	8	9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사계 '하녀들'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45)</p>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세진 '모의'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세진 '모의'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다섯손가락 '만복사'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다섯손가락 '만복사' 18: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13	14	15	16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바문사 '표풍'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070-8899-7308)</p>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바문사 '표풍'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시나위 '바람, 바람'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고성현& Opera Stars' 19:30 12만원·8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p> <p>소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OFF부문 극단 시나위 '바람, 바람'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 17:0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p> <p>중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IN부문 극단 배우창고 '급제록' 18: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6:00 선착순 무료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5)</p>
20	21	22	23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1_시마노프스키 콰르텟' 20: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중 김성연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올웨이코리아(070-8254-1918)</p> <p>소 부산시립극단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10:00 무료(어린이 연극 '곰사들이 망아지' 균일 1천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p>중 어린이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뮤지컬쇼' 10:10, 11:10 균일 1만원(단체예매시 5천원) 키즈샵&프렌즈 02-6205-6593</p> <p>소 부산시립극단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10:00 무료(어린이 연극 '곰사들이 망아지' 균일 1천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래식 재즈를 품다' 19:30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중 김시하, 박소연, 엄남이, 임혜정 4인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920-9545)</p> <p>소 부산시립극단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10:00 무료(어린이 연극 '곰사들이 망아지' 균일 1천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6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우드워드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27	28	29	30
<p>중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최은실(010-3304-5154)</p>	<p>대 운아 제갈삼 교수 망백(希百)기념 음악회 19:30 무료/부산문화(1600-1803)</p>	<p>대 노엘합창단 제5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노엘합창단(010-5796-1115)</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II '러시아 음악 여행 - 그 두 번째 여정'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소 미노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2만원·1만원/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70-8265-0776, 010-2752-9923)</p>	<p>소 토요일상설무대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로이멘 앙상블 노 프래임 심리클래식'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

시대정신이 반영된
컨템포러리한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

“부산시립무용단 하면 국내 최초 시립무용단이라는 오랜 전통에서 묻어나는 노련미와 더불어 부산 특유의 거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은 글로벌 다문화시대, 지역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부산시립무용단을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부산시민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용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은 1990년 서울시립무용단에 입단, 단원으로 3년간 활동했으며 2001년부터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로 8년간 구미시립무용단을 이끌어오기도 했다. 학창시절 스스로 생각해도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다분했다는 그는 고등학생이던 당시 대구의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눈에 들어 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대중적인 춤이 아닌 학문으로 제대로 춤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에 무용학과 입학 결심한 김감독은 뒤늦게

시작한 춤이라, 남학생 우대로 겨우 턱걸이해 입학했지만 곧 타고난 재능과 춤에 대한 열정으로 4년 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에 1992년 썬무용단을 창단, 안무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김용철 예술감독은 1992년 ‘춤의 해’를 맞아 열린 젊은 안무가 육성지원 사업에서 첫 작품 ‘서투른 여행자’로 안무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생을 거대한 장기판으로 비유해 김삿갓식의 여유와 풍자로 표현, 스스로 정련된 동작과 신체에 의해 흔치않는 창작춤으로서 상(像)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은 ‘서투른 여행자’는 서울 무대의 호평에 힘입어 부산과 대구에서 열린 ‘지역간 연합무용제전’ 무대에 다시 오르면서 부산과 첫 인연을 맺게 해준 뜻깊은 작품이다.

안무가로서 춤에 대한 철학을 담은 썬무용단은 지난 20여년 간 베이징, 상하이, 도쿄, 방콕, 인도, 독일, 뉴욕 등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무대에서 우리 전통춤의 현대화를 추구한 다양한 창작춤으로 한국춤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10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식초청



작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동양적 감성으로 밀도있게 형상화하여 당시 침체기에 처한 한국창작춤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업경대'는 그 해 대한민국무용대상 군무부문 베스트5, 한국춤비평가협회 작품상 베스트6, 공연과 리뷰 PAF 춤 작가상, 연낙재 무용작품 베스트5 등 주요 상을 휩쓸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밖에 1997년 제1회 서울미래춤비엔날레에서는 '붉디붉은'으로 특별상을, 2013년에는 '바랏-살'로 한국무용제전 우수작품상, 2015년에는 '흑살풀이'로 대한민국무용대상 솔로&듀엣부문 베스트5에 선정되면서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남성춤꾼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3년간 미국 KMP Artists 기획 단독초청으로 미주 7개 도시 12회 공연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산타루시아 예술제를 통해 한국창작춤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하며 한국춤의 새 기류를 대변해온 김용철 예술감독은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지만 틈틈이 부산지역 무용가들의 작품을 연출하거나 출연하는 등 부산 무대에도 꾸준히 서왔다. 최근 3년동안에는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

제무용제에 빠짐없이 참여해오면서 부산 관객들과도 얼굴을 익혀왔다. "앞으로 한국문화를 기조로 아시아문화의 영역까지 창작의 범위를 확장시켜 당대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컨템포러리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겠습니다."

바로 코 앞에 다가온 5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지만 우선 단원들과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쌓은 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는 김용철 예술감독. 앞으로 단원들에게 보다 넓은 무대와 기회를 제공해 단원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스타시스템'도 구축시켜 나가겠다는 그는 또한 해외 아티스트, 프로모터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작품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적인 가교역할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부산에서 새로운 춤 인생을 시작하는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에 기대가 모아진다.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명사

Teatro alla Scala

라 스칼라 극장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키인 Il Turco in Italia(1814년), 벨리니의 노르마 Norma(1831년), 도니제티의 여왕 3부작 중 마리 스튜어트 Mary Stuart(1835년), 베르디의 나부코 Nabucco(1842년), 오텔로 Otello(1887년), 팔스타프 Falstaff(1893년),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셰니에 Adrea Chenir(1896년), 푸치니의 나비부인 Madame Butterfly(1904년), 투란도트 Turandot(1926년) 등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의 대표작품 상당수가 오늘 이야기할 라 스칼라 극장 Teatro alla Scala에서 초연했다.

불세출의 작곡가 베르디는 무려 여덟편의 오페라를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했으며, 푸치니의 유작 투란도트는 그의 친구인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올려졌다.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의 관객들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있다.

비옥한 롬바르디아 평야 중앙에 있는 밀라노는 예부터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유럽 내륙과 연결되는 곳이면서 예술적으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인구, 정치적 영향력, 문화·예술 면에서는 로마에 이은 이탈리아 제2의 도시지만, 상업·공업·금융 분야에서는 제1의 도시이다.

역사적으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이곳에서 크리스천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고 774년에는 프랑크왕국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했다. 15세기 중반, 한때 서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밀라노는 부흥을 꿈꾸었다. 천재 건축가와 화가를 밀라노로 불러들인 이는 문화적, 경제적 기반을 지닌 부호들이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Chiesa di Santa Maria delle Grazie 성당이다.

(이 곳에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이 보존되어 있다.)

1538년에서 1713년까지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1805년 나폴레옹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다. 밀라노 주민들의 강한 애국심과 부지런한 노동 정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밀라노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거점으로서, 또 현재는 이탈리아 공업의 중심지로서 가장 부유한 지방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부와 예술을 등에 업은 밀라노는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도시이다. 그 중심에 라 스칼라 극장이 있다.

라 스칼라 극장은 밀라노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던 1778년 완공되었는데, 화재로 소실된 레지오 두칼레 극장 Teatro Regio Ducale이 전신이었다.(당시 대작곡가인 스카를라티의 작품과 루치오 실라와 같은 모차르트의 초기 오페라들이 초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14세기에 위치를 달리하여 오래되고 낡은 성당 '산타 마리아 알라 스칼라'를 허물고 그 부지 위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지금의 이름 라 스칼라 극장 Teatro alla Scala으로 이름 붙여졌다. 라 스칼라 극장의 건축 디자인은 주제페 피에르 마리니가 설계했으며 개관작은 살리에리의 오페라 유럽의 발견 Europa Riconosciuta이다. 이후 150여 년동안 수차례의 개보수 작업을 통해 극장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2차대전인 한창인 1943년 영국군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재개관되던 해인 1946년 5월 재개관 기념 갈라 콘서트는 토스카니니가 맡았다. 이후 반세기 동안 라 스칼라 극장은 단 한번도 시설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고 2002년이 되어서야 건축가 마리



오 보타의 설계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2004년 12월 현재의 모습으로 3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3년 간의 공사기간 동안은 밀라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아르침볼디 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다.)

20세기 라스칼라 극장의 전통을 살린 가장 큰 공은 역시 지휘자 토스카니니이다. 그는 1898년 만 서른의 나이로 음악감독에 취임했는데 이탈리아에서의 대성공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1921년 귀국 이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을 두번 더 역임했다. 토스카니니는 언제나 예술이 존중되기를 추구했다. 당시만 해도 공연 중 관객들이 멋대로 출입하거나 잡담을 일삼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성악가들의 전횡을 막고 작품보다 우위에 놓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기도 했다.

토스카니니 이후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이 거쳐갔지만 20세기 후반은 단연 리카르도 무티의 활약이 눈에 띈다. 무티는 1986년 취임 후 무려 19년간 라스칼라 극장을 이끌면서 토스카니니의 재래를 꿈꾸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작품들을 재조명하는데 앞장섰으며 2002년 시작된 극장 보수공사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부흥을 이끌었다.

2004년 라스칼라 극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때 무티가 지휘했던 오페라는 226년 전 개관 작품이었던 살리에리의 유령의 발견이었다. 극장의 오랜 전통이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적통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극장 경영진과의 불화로 취임 20주년을 1년 앞두고 그는 결국 사임하고 만다. 리카르도 무티 이후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작년부터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

필자가 이 극장을 처음 찾았던 것은 5년전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마농과 맥베스, 신들의 황혼, 엘렉트라 등의 오페라를 만나기 위해 매년 한두 차례 이상은 방문했다. 처음 라 스칼라 극장을 방문했을 때 두번 놀랐던 기억이 난다. 명성에 비해 극장 건물은 심플했다. 빈 국립가극장이나 파리 오페라 극장의 파사드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온통 붉은 빛으로 치장된 내부는 그 어떤 오페라 극장 못지 않게 화려했다.

종종 관현악 공연을 마주할 때, 누가 지휘를 맡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오페라의 경우는 보통 지휘자보다는 캐스팅에 더욱 촉각을 세운다. 라 스칼라 극장에서 만났던 두번째 오페라는 안나 네트랩코가 캐스팅되었던 마스네의 오페라 마농 Manon이었다.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를 만나기 위해 찾았건만 그녀는 끝내 무대에 서지 않았다. 급조한 팜플렛에는 신인 가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물론 안나 네트랩코 대타로 무대에 섰던 그녀도 마농 역을 충분히 소화했지만 못내 아쉬웠다. 이듬해 맥베스를 보기위해 찾았을 때는 무대시정으로 공연이 제시간에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은 합창단 배열로 콘서트 형식으로 치뤄졌다. 물론 입장료는 전액 환불조치가 되었다. 이렇듯 매년 라 스칼라 극장은 작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마지막 편 '신들의 황혼'을 만났을때 비로소 라 스칼라 극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닝타임 6시간을 끝내고 관객앞에 선 다니엘 바렌보임과 그가 이끄는 라 스칼라 오페라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실력이었다.

지난 5년간 십여 차례 가까이 방문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작곡가의 오페라를 마주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그만큼 레퍼토리가 다양함에 이유가 있겠다. 오페라 티켓은 라 스칼라 극장의 공식 웹사이트 www.teatroallascala.org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 오페라의 경우 거의 매진된다. 티켓 매표소는 극장과 조금 떨어진 두오모 역 지하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연시간이 임박하면 극장 좌측 매표소에서 배부하기도 한다.

밀라노를 찾는 많은 이들은 두오모나 패션거리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라 스칼라 극장에서의 오페라 관람을 꼭 권하고 싶다. 만약 오페라에 관심이 덜하다면 라 스칼라 극장 투어라도 추천한다. 그 화려한 극장 내부를 마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수 없이 다시금 이 극장을 찾게 될 것이다.



가장 순수한 춤과 만나다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 축제

4월 1일(금) - 18일(월)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서울무용센터, 제주
돌문화공원, 사상인디스테이션

일반 2만원, 학생 1만 2천원(워크숍 2만원)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02-3674-2210, www.jpap.co.kr

각본 없는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몸짓을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즉흥춤 축제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가 4월 1일부터 서울과 제주, 대구, 부산에서 펼쳐진다.

창작주체자의 무의식으로부터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즉흥(improvisation)은 무용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공연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이미 짜여진 작품, 규격화된 공연 형식이 아닌 출연자들의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꾸밈없는 무대로, 형식을 벗어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몸짓은 무용가

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참여하면서 예술체험과 함께 예술행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는 서울국제즉흥춤축제(Simpro)는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해 외국의 즉흥전문 무용가와 안무가, 연주가 등을 초청, 국내 즉흥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즉흥 공연을 소개해오고 있다. 그동안 축제를 통해 즉흥 테크닉, 접촉즉흥 등 워크숍과 즉흥잼을 비롯해 솔로, 그룹즉흥, 테마가 있는 즉흥, 크로스오버 등 다



양한 형태의 즉흥공연을 시도해왔으며, 전문예술가들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들과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즉흥 워크숍과 공연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면서 즉흥을 통한 무용 관객개발과 춤의 대중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공모와 초청을 통해 선정된 세계적인 즉흥 전문 아티스트 200여 명이 참여하는 '2016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 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아티스트들이 협업으로 작업하는 즉흥 프로젝트가 새롭게 선을 보인다. 20여 명의 한국과 프랑스 무용가, 연주가들이 참여하는 한-불 협업 즉흥프로젝트 'Voici'는 4월 13일 아르코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공식 개막행사는 4월 12일 서울무용센터에서 열린다. 'Enjoy Impro-공간과 즉흥'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개막축제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6개의 메인공연을 비롯해 라운드 테이블 Talk!Talk! 즉흥 '지금, 세계의 즉흥은?', Emmanue Grivet Company와 함께 하는 컨택즉흥 잼, 국제 즉흥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장장 9시간동안 펼쳐진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즉흥 전문단체와 커뮤니티 댄서들의 무대인 '150분 릴레이 즉흥 난장'이, 16일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컨택즉흥 무대에 이어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파티가 아르코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각각 4회째와 3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즉흥춤축제(Bimpro, 4월 16일~18일), 대구국제즉흥춤축제(Dimpro, 4월 4일~6일)와 연계해 개최되며 제주국제즉흥춤축제(Jimpro, 4월 4일~6일)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앞으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생태즉흥춤 공연으로 특화시켜 진행될 예정이다.



2016 부산국제즉흥춤축제

4월 16일(토)~18일(월) 해운대 백사장, 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춤공간 SHIN극장 외
부산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510-2956, cafe.daum.net/bimpro

올해 9회를 맞는 부산국제즉흥춤축제(예술감독/박은화)는 4월 16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즉흥춤 공연을 시작으로 12일과 13일 사상인디스테이션 극장에서 국내외 춤꾼들의 자유로운 몸짓이 펼쳐진다. 강미리, 강미희, 강희정, 김옥련, 노영재, 박은화, 성은지, 신은주, 이태상, 함수경, Chloé Caillat, Marianne Masson, Marie-Pierre Genard, Olivier Nevejans, Emmanuel Grivet, Jean-Remy Guédon, haku sungho 등 국내외 춤꾼들이 참가하는 이번 부산국제즉흥춤축제는 2016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프랑스-부산 협업 즉흥공연을 비롯해 Free 즉흥공연, 릴레이 즉흥공연, 컨택 즉흥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일정

- 16일 오후 2:00 해운대 백사장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즉흥공연
- 17일 오후 4:00 사상인디스테이션 야외공연장 및 극장
Free 즉흥공연(학생), 릴레이 즉흥공연(전문가, 커뮤니티그룹)
- 18일 오후 6:00 부산춤공간 SHIN극장
프랑스-부산 협업 즉흥공연, 컨택 즉흥공연



BOOK & GALLERY, ANTIQUE

문화
공간

동
넉

북카페에서 갤러리, 아트숍까지 한 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지난 1월 연세구청 인근 경동아파트 상가 1층에 문을 연 '문화공간 동넉'은 보수동책방골목에서 오랫동안 '고서점'을 운영해온 양수성 대표가 일반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헌책을 비롯한 고서와 미술품, 앤티크한 생활소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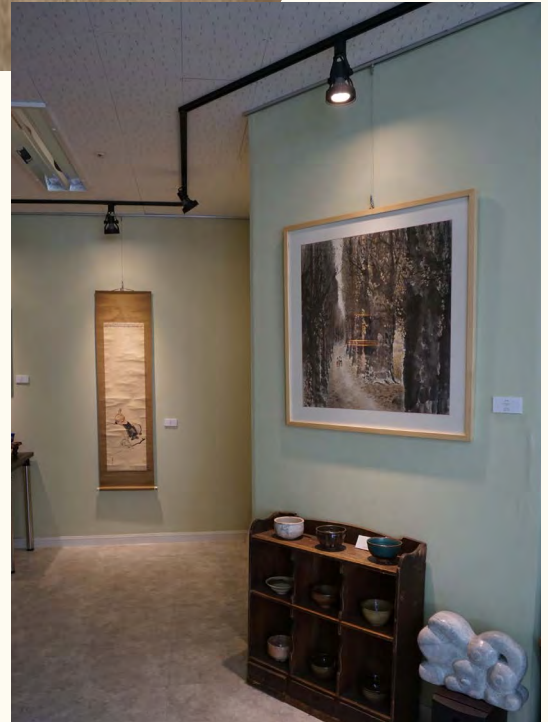
오랫동안 '고서점'을 운영해오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이 현대미술, 고미술, 음악 등 다른 장르의 예술분야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는 양수성 대표는 책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한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문화공간 동넉'을 열었다. 19평의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는 헌책과 고서, 고서화, 생활소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한켠에 커피와 차 등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들려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이다. 이 곳에 비치된 모든 중고책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소장품 원하면 그 자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도 가능하다. 문화공간 동넉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양수성 대표와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앞으로 분기별로 전시물을 교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문화공간 동넉이 매달 마지막 날 열고 있는 경매 이벤트는 생활소품 중심의 중저가 미술품을 소개하면서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





할 수 없는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예술품도 소장할 수도 있다. 개소식이 열렸던 지난 1월 31일 진행된 첫 경매 '나도 앤티크 작품 하나 마련해 볼까'에 이어 2월에는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은, 동, 무쇠, 도자기로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주전자를 경매에 부쳤던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가 열리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문화공간 동녘이 진행하는 경매 이벤트는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고가 예술품이 아닌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50만원대 이하 생활소품들이 대부분이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차츰 늘고 있다. 경매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경매에 앞서 문화공간 동녘 블로그(blog.naver.com/dongnyukspace)에 소개되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문화공간 동녘에서는 고서적과 고미술품을 중심으로 한 앤티크 전시가 상설적으로 열리고 있다. 문화공간 동녘 개관을 기념해 열렸던 '한글 옛 책들, 한글의 아름다움'은 한글로 된 고서를 소개하는 전시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쓰인 갖가지 필체의 한글 고서를 볼 수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어서 3월 말에는 근대신문을 통해 지난간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근대신문전', 4월에는



1970~80년대 활동했던 도예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한국 현대 도자기 명인전', 5월에는 범일 매축지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을 소개하는 인형전 등 다양한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하우스음악회와 야외 버스킹 공연도 앞으로 가져나갈 계획이다.

문화공간 동녘이 아파트 상가에 자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의 발걸음이 잦다는 양수성 대표. 최근 들어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활 속 문화공간'을 표방한 문화공간 동녘이 그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양수성 대표는 마침 동녘이 자리한 경동아파트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문화공간 동녘도 꿈꾸고 있다.

문화공간 동녘은 현재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4월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된다.

●문의/문화공간 동녘 070-7783-7455
blog.naver.com/dongnyukspace

신라 천년문화의 보고



경주로 떠나는 봄 여행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은 지났지만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봄의 길목을 막아서던 지난 3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114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3월 테마여행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2006년 3월 시작된 테마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로, 첫 여행의 설렘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3월이면 '경주수학여행 다시가기'라는 타이틀로 경주를 찾고 있다



무열왕릉(上) 주상절리(下)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정기회원 가족들로 북적인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 시간여를 달려 경주에 도착하자 이번 테마여행의 답사를 도와줄 문화유산해설가 최승욱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최승욱 씨의 안내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태종무열왕을 모신 무열왕릉. 신라의 능 가운데서도 주인이 정확하게 알려진 몇 안 되는 능으로, 이 곳 입구에 서 있는 국보 제25호 태종무열왕릉비 머릿돌 중앙에는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 쓴 ‘태종무열대왕지비’라는 글이 남아있어 이 능이 태종무열왕릉임을 밝히고 있다.

태종무열왕이었던 김춘추와 처남, 매부 사이였던 김유신 장군의 묘는 무열왕릉에서 약 3km 남짓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만 있는 소박한 왕릉인 무열왕릉과 달리 김유신장군묘는 지름이 30m에 달하며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해 왕릉에 버금가는 화려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김유신 장군이 가야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 많은 민중들의 추종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이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삼국통일의 대 위업을 달성한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의 능을 차례로 돌아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이른 점심을 먹기 위해 교촌마을으

로 자리를 옮겼다. 경주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아삭거리는 콩나물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일정 첫 번째 코스인 경주 주상절리를 만나기 위해 하서항으로 이동했다.

자연이 연출한 조각품이라 일컬어지는 주상절리는 분출된 용암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수축되어 생긴 기둥 형태의 바위 무리를 일컫는데, 이 곳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 유명하다. 특히 하서항에서 벽화마을로 유명한 읍천마을에 이르는 1.7 km 구간은 ‘파도소리길’이라는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파도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회원들은 짙푸른 동해바다와 다채로운 주상절리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에 연신 탄성을 자아낸다.

특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진 정기회원들은 또다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무대왕릉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무대왕릉은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중릉(水中陵)으로,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며 화장해서 동해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 아들인 신문왕이 문무왕의 유골을 지금의 수중릉에 뿌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봉길리 해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있는 길이 20m 바위섬으로, 그 바위섬 가운데 조그만 수중 못이 있고, 그곳에는 길이 3.7m, 너비 2.06m, 두께 0.9m의 화강암이 놓여 있는데 문무왕의 유골이 이 돌 아래

에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중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이 판석(板石)처럼 생긴 돌 밑에 어떠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사방으로 마련된 수로와 안쪽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문무왕의 수중릉일 것으로 믿고 있다.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국보 제 112호)

문무대왕릉을 뒤로 하고 또다른 문무대왕의 자취가 남아있는 감은사지로 자리를 옮겼다. 신문왕 2년(682년)에 건립된 감은사는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삼국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완성했으나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에 근심했던 문무대왕이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를 격퇴하고자 세운 '진국사'의 전신이다. 문무대왕이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절을 완공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감은사 금당 아래에는 여느 절과는 달리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동해의 용이 된 문무대왕이 드나들며 지친 몸을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곳 감은사지에는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탑인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국보 제112호)이 자리하고 있다. 한 반도를 답사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애!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애!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애! 감은사..."라고 감탄했던 바로 그 석탑으로, 웅장하면서도 절묘한 비례의 아름다움에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한다. 최승욱 해설사의 선창에 따라 회원가족들도 '감은사' 삼창을 따라하며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골굴사로 자리를 옮겼다.

석굴사원으로 유명한 골굴사는 1,500년 전 천축국(인도)에서 건너온 광유스님 일행이 자국의 사원 양식을 본따서 창건한 전형적인



골굴사

석굴사원으로, 여러 개의 동굴군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 곳이 유일하다. 법당 굴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애불(보물 582호) 앞에 서자 활짝 웃고 있는 부처님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특히 골굴사는 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의 본산지로, 하루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절을 찾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무도 시범공연을 갖는다. 공연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절을 찾았지만 공연 막바지에서야 겨우 도착해 아쉬움을 남겼다.

골굴사를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아련한 추억 속 그 기억을 찾아 떠났던 경주여행은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수학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5월 13일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기행을 떠난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대구도착, 골목투어

(동산 선교사주택-31만세운동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12:30 중식

13:30 진골목,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등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04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이향미(서구 대신공원로)
김지은(남구 동향로)	이행자(사상구 낙동대로)
박미라(북구 함박봉로)	정영민(남구 유엔로)
송수민(남구 동명로)	최정희(서구 망양로)
이유진(동구 중앙대로)	황정애(남구 동향로)

● 기존 회원

강복례(동래구 총렬대로)	송말남(연제구 중앙대로)
김효정(수영구 광남로)	정희정(동래구 금강공원로)
박근령(연제구 거제대로)	조리수(남구 유엔로)
박창석(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조성열(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배진희(남구 동제당로)	조은아(금정구 개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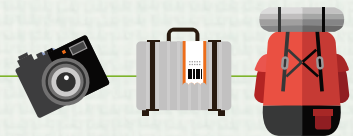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2016 * 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2016. 4. 20(수) ~ 22(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장 체험 페스티벌

PM 12:00~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
PM 12:30~	김경남 초록미술사 재미있는 미술여행
PM 01:30~	끼리프로젝트 어린이 뮤지컬 -"모해?모해?"
PM 02:30~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
PM 03:00~	어린이 합창단 특별공연 - 동화의 나라로
PM 04:00~	군악대공연 - 해군작전사령부

초록부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체험 페스티벌

- ✓ 인형가면 만들기 체험
- ✓ 인형탈 포토존
- ✓ 한국 전통탈 만들기 체험
- ✓ 키다리 풍선아트
- ✓ 얼굴에 예쁜 윤양그리기
- ✓ Life Straw 체험
- ✓ 책감피 만들기
- ✓ 아프리카 사진퍼즐

어린이 연극

AM 11:00~ 곱사등이 망아지
PM 01:00~
-연출 이혁우, 조연출 오희경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료 1,000원

CULTURE LIFE

INVITATION TO THE ARTS

April 2016
vol.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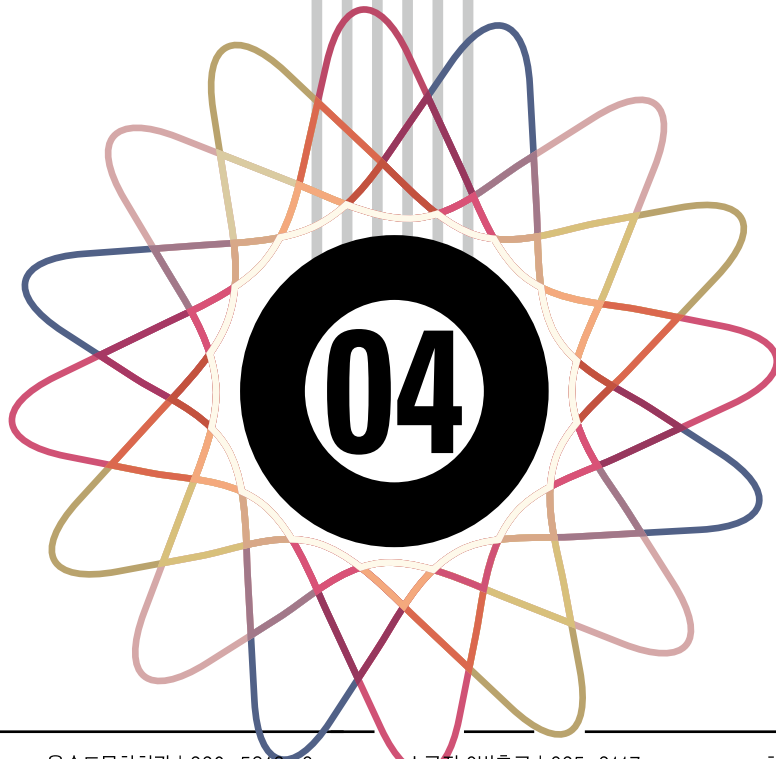
28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27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고성현 & Opera Stars

고성현



최고의 베르디아노(베르디 오페라 가수) 바리톤으로 유럽 무대에서 호평받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리톤 고성현과 유럽 최정상 오페라 가수들이 펼치는 오페라 갈라무대 '고성현 & Opera Stars'가 4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4.15(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디에고 크로베티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 해석과 오페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지닌 실력과 마에스트로 디에고 크로베티(Diego Crovetti)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고성현과 완벽한 고음과 서정적인 음색의 테너 디에고 카바찐(Diego Cavazzin),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넬로 산티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소프라노 세레나 다오리오(Serena Daolio),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무대 위의 팔색조 메조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쉬볼레토(Patrizia Scivoletto)가 출연, 비제 '카르멘', 푸치니 '라보엠', 베르디 '아이다', '일트로바토레', 레온 카발로 '팔리아치' 등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한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대중가수로 활동하다 성악가로 데뷔한 특이한 이력을 지닌 테너 디에고 카바찐은 2011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만토바백작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후 진하고 향기로운 음색을 가진 이 시대 최고의 리릭 테너로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세계적인 비냐스 국제콩쿠르에서 1위 및 5개의 특별상을 거머쥔 소프라노 세레나 다오리오는 2001년 세계 나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스칼라극장, 마드리드극장, 나폴리극장, 텔아비브극장, 팔레르모극장 등 유럽 무대를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Toti dal Monte', 'AS.L.I.CO' 국제콩쿠르 피날리스타로 입상하며 페르골레지 '스타 바트 마테르'로 데뷔무대를 가진 메조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쉬볼레토는 오페라 뿐 아니라 레퀴엠, 오라토리오, 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레나 다오리오



파트리치아 쉬볼레토



디에고 카바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 오페라극장 오페라 코치 및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밀라노 스칼라극장, 일본 도쿄 오페라극장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기도 한 지휘자 디에고 크로베티는 2002년 하이델베르크 야외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아이다'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오페라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바리톤 고성현은 세계 유명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세계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으며 이태리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나비부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국제콩쿠르 1위 및 '가장 아름다운 소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성현은 현재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

수석지휘자 전상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상실과 아픔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합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특별한 무대, 치유음악회를 마련한다.

소프라노 김민지



세월호 참사 2주기 당일인 4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부산MBC 아나운서 박유라의 해설, 소프라노 김민지, 앨토 정은영, 테너 이은민, 베이스 김정대의 특별출연, 부산시립합창단,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곡 '비누방울'과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이자 마지막 걸작인 '레퀴엠'을 들려준다.

앨토 정은영



첫 곡인 '비누방울'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비누방울과 같이 덧없이 죽어간 가여운 넋을 기리는 고은하 시인의 추모시에 작곡가 임채일이 곡을 붙인 추모곡으로, 그해 6월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에서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 담당 최석태의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테너 이은민



흔히 '진혼곡'으로 불리는 '레퀴엠'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와 치유를 기원한다. 당시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하던 도중 사망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된 '레퀴엠'은 사후 모차르트의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모차르트가 남긴 스케치를 토대로 곡을 완성

베이스 김정대



4.16(토)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했다.

이번 무대의 솔로리스트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민지는 주세삐 디 스테파노 시칠리아 국제콩쿠르 1등, 아네모스 로마 국제콩쿠르 1등, 로에로 인 무지까 토리노 국제콩쿠르 2등, 따우리아 노바 베르디 시칠리 국제콩쿠르 1등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유럽을 무대로 활동중이다. 앨토 정은영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으로 있으며 부산초연 오페라 'Orfeo'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현재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부산성악아카데미,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테너 이은민은 그동안 15차례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레퀴엠 독창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오페라 공연, 부산아시안 게임 문화축전, 영호남 교류음악회 등 수백 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그동안 다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관객과 만나온 베이스 김정대는 현재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해피양상블 단원, 칸타빌레 남성중창단 단원,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I 시마노프스키 콰르텟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좌), 김태형(우)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현악사중주단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첫 번째 주인공으로 4월 20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4.20(수) 오후 8: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Chamber Series'는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실내악 시리즈 무대로,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시마노프스키 콰르텟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출연, 실내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199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아가타 심체브스카, 그레체 고로츠 코토우, 비올리스트 볼로디아 마이키토카, 첼리스트 마르친 시에니아브스키로 결성된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은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카롤 시마노프스키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하노버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메모리엄, 플로렌스 프레미오 빅토리오 기 콩쿠르에서 1위 수상하고 오사카 국제실내악콩쿠르, 멜버른 국제실내악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세계 유명 콩쿠르를 통해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은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은 그동안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허바우, 빈 무지크페라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스톡홀름 그뤼네발트홀 등 세계 유수 공연장과 슬레스비히홀슈타인, 라인가우,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음악회, 브레겐츠, 슈베팅겐, 니더 작센 뮤직 페스티벌 등 국제음악제를 통해 명성을 쌓아왔다.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은 그동안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곡가에서부터 시마노프스키, 자렘스키, 자렘브스키와 같은 폴란드 대표 작곡가와 현대작곡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지성과 감성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세련된 프로그래밍으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30번 내림마장조 '농담'을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제8번 다단조 작품 110, 카롤 시마노프스

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녹턴과 타란텔라 작품 28', 슈만 피아노오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4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슈만 '피아노오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4'는 타고난 균형감과 논리정연한 해석으로 일찍부터 차세대 연주자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호흡을 맞춘다. 2004년 제21회 포르투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및 베토벤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김태형은 2010년 세계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5위, 2013년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과 동시에 청중상을 수상하며 저력 있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김태형은 현재 독일 뮌헨을 기반으로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트리오 가온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Preview

부산시립극단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어린이들이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이 4월 20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과 국제회의장에서 펼쳐진다.

4.20(수) - 4.22(금) 오전 10:00 -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국제회의장

입장료 무료
(어린이연극 '곱사등이 망아지' 균일 1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7

부산시립극단이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러시아의 문호 표트르 파블로비치의 동명의 어린이소설을 무대에 옮긴 어린이극 '곱사등이 망아지'를 비롯해 부산 유일의 인형극단인 '인형극단 예예'의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 초록마술사 김경남의 마술쇼 '재미있는 마술여행', 어린이극단 끼리프로젝트의 뮤지컬 '모해? 모해?'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장르의 연극에서부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 이혁우가 연출한 어린이극 '곱사등이 망아지'는 러시아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러시아 최초의 장편 시 동화로, 누구에게나 바보 취급을 받던 주인공 이반이 마법의 곱사등이 망아지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 진정한 용기를 심어준다. 공연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이며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인형극단 예예의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아기돼지가 아닌 늑대의 입장에서 각색, 기존의 동화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공연시간은 오전 12시와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에 이어서 오전 12시 30분부터는 초록마술사 김경남이 진행하는 '재미난 마술여행'이, 오후 1시 30분부터는 어린이극단 끼리프로젝트의 어린이뮤지컬 '모해? 모해?'가 펼쳐진다. 어린이뮤지컬 '모해? 모해?'는 핸드폰게임에 빠져있는 푸름이가 전화기도 컴퓨터도 없는 모해마을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그린 창작뮤지컬로, 추억 속 전통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오후 3시부터는 극동방송전속어린이합창단과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신나는 동요여행'이란 제목으로 민요메들리에서부터 국내외 가곡, 다양한 재즈 느낌을 담아낸 영국작곡가 밥 칠콧의 'A Little Jazz Mass'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마지막 무대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무대로,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경쾌한 행진곡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밖에 행사기간 동안 국제회의장에서는 전통 탈 문화재 전수자로부터 배우보는 전통 탈 만들기 체험과 인형극단 예예의 공룡가면 모자 만들기 체험, 기다리 풍선아저씨의 풍선아트 체험,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책갈피 만들기, 아프리카 퍼즐체험, 행복한 나의 얼굴 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들을 만날 수 있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래식 재즈를 품다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 재즈의 즉흥연주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 '클래식 재즈를 품다'가 4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4.22(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상임지휘자 김병수가 이끄는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재즈가수 위나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KBS PD, 부산재즈협회 회장이자 KBS FM '4시의 뮤직파일' DJ, 음악공간 '라디오' 대표인 도병찬의 해설로 클래식과 재즈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2009년 7월,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로 창단한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는 2011년 5월 부산, 경남지역의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이듬해인 2012년 9월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클래식과 타 장르 음악과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온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는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I~VII), 애니메이션음악회(11회),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연간 30회 이상), 열린 음악회 등 연간 70~8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하는 매력적인 오케스트라로 사랑받아왔다.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재즈밴드 레인메이커(Rain Maker)는 트롬본 심규성, 기타 김정태, 드럼 서진석, 키보드 김수지나로 구성된 관록있는 재즈밴드로, 오랜 연주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대중적인 연주는 물론 실험적인 무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레인메이커는 재즈클럽 연주를 비롯 상설 재즈콘서트 '재즈 와인에 빠지다', 해운대 달맞이언덕축제 개, 폐막식 초청공연, 오사가 '다카츠키 재즈 스트리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밖에 이번 무대에서 재즈의 대표적인 스탠다드 곡으로 손꼽히

는 에롤 가너의 'Misty'를 들려주는 재즈가수 위나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용음악 보컬전공(석사 수료)한 후 그동안 세 장의 음반을 통해 뛰어난 리듬감과 자신만의 색채가 뚜렷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윙시대를 열었던 빅밴드 재즈의 창시자 듀크 엘링턴의 대표곡들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한 'Duke Ellington!',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스윙 느낌으로 편곡한 'Amadeus grooves', 척 맨지오니의 영화음악 '산체스의 아이들',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라틴 스타일로 편곡한 재즈피아니스트 칙 코리아의 '스페인', 전설적인 재즈뮤지션 듀크 엘링턴을 기린 팝가수 스티비 원더의 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Sir Duke'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II 러시아 음악 여행 - 그 두 번째 여정

지휘 윤승업



피아노 이주은



객원지휘 정희정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4.29(금)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3151

이번 무대는 지난 2월 '차이코스프키편'에 이어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 하차투리안, 립스키-코르사코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러시아 음악여행' 두 번째 무대로,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윤승업이 객원지휘하고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주은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된다.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윤승업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전문사과정에 있다 독일로 유학, 바이마르 국립음대 개교 최초로 지휘과 Diplom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획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Jesus-Lopes cobus 국제지휘콩쿠르에 입상하는가 하면 Karajan 협회에서 주최하는 Interaction Conducting Workshop에서 한국인 최초로 2006년과 2007년 우수지휘자로 선발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작품 26. 1954년 소비에트 혁명 기념일을 위해 작곡되었으나 즐거운 분위기와 넘치는 밝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이라 불리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18' 중 제1악장으로 유려한 테크닉 속에서도 음악의 자연스러움과 진지한 열정이 묻어나는 피아니스트 이주은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도독, 뮌헨 국립음대를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오스트

리아 잘쯔부르크 모짜르테움 음대 Magisterium 솔리스트과정,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주은은 2006년 스페인 하엔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입상을 시작으로 이태리 칼라브리아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 카사그란데 국제피아노콩쿠르 Premio Speciale상 등 유명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으며 한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러시아 민속음악의 매력적인 멜로디와 풍부한 색채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하차투리안의 발레곡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와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립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중 제4악장을 들려준다.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근대작가전 THE MODERN THEATER : THE BEGINNING

5월 6일(금)~15일(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광안리 야외무대, 나다소극장, 용천지랄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1층 2만 5천원, 2층 2만원(Go World Festival, Dynamic Fringe 균일 1만 5천원)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은 '근대작가전(The Modern Theater : The Beginning)'. 지금 이

시대 자리잡은 연극의 시발점이 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앞으로 연극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학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부산 연극의 새로운 실험들을 지지하고자 마련된 무대로, 19세기 말 러시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뛰어난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 세계적인 부조리 작가 장 주네 등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다.

2016년 올해도 프랑스, 러시아, 조지아, 일본, 한국 등 5개국 7개 우수작품을 초청해 선보이는 'CONCEPT' 부문과 세계 유명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그리고 공연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유 참가공연



프로그램 'Dynamic Fringe'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찾는다.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그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작은 러시아 극단 'Roman Viktyuk Theatre'의 '하녀들(The Maids)'. 장 주네의 대표적인 부조리극인 '하녀들'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연극놀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통해 꿈꾸는 자매 쓸랑주와 끌레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5월 6일과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폐막작은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가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루이 블라스(Ruy Blas)'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 폐막작을 제외하고 'CONCEPT' 부문에 참가하는 작품은 모두 5개 작품으로, 특히 2016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주간' 프로그램을 신설, 폐막작 '루이 블라스(Ruy Blas)'를 무대에 올리는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가 몰리에르의 '수전노'와 체호프의 대표 단편극 3편을 묶은 '사랑에 대하여(Des Amours)'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CONCEPT' 부문에서는 지난해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하팡세의 '파우스트'와 조지아극단인 'Kote Marjanishvili State Drama Theatre and Emilia Romagna Teatro Fondazione Co-Production(Georgia-Italy)'의 '광인일기(The Mad Man's Diary)', 일본극단 'CHITEN theatre company'의 '벚꽃동산(The Cherry Orchard)'이 무대에 오른다.

세계 유명 축제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Go World Festival'은 올해 국내 12개팀이 참가한다. 그동안 'Go World Festival'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 아시아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매년 참가팀이 늘고 있다.

이밖에도 연극제 기간 동안에는 부산 시민을 비롯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시민들의 열띤 경연의 장이 될 '10분 연극제'는 일반부와 전공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계 유명 연출가로부터 독특한 메소드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과 공연 후 공연자와 관객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인 '아티스트 토크', 국내외 공연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인 '아트마켓' 등이 열린다.



컨셉트 초청작 '한국극단 하팡세 '파우스트',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 '루이 블라스' 공연 모습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러시아극단 Roman Viktyuk Theatre '하녀들(The Maids)'[개막작]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2:00,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장 주네의 대표적인 부조리극으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연극 놀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통해 꿈꾸는 자매 쓸랑주와 끌레르의 이야기.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 '수전노(Lavare)'

5월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5:00, 9일 월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돈 많은 부자 혹은 세상에 돌도 없는 늙은 수전노 알파공의 이야기.

한국극단 하팡세 '파우스트(Faust)'

5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9일-10일 월-화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평생 연구에 매진하던 파우스트가 한 계약을 시작으로 자신의 이상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 '사랑에 대하여(Des Amours)'

5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체호프의 대표적인 단편극 '청춘', '담배 해약에 관하여', '꿈'을 엮은 단편 모음극.

조지아극단 Kote Marjanishvili State Drama Theatre and Emilia Romagna Teatro Fondazione Co-Production(Georgia-Italy) '광인일기(The Mad Man's Diary)'

5월 12일-14일 목-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한 남성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유를 찾는 이야기.

일본극단 CHITEN theatre company '벚꽃동산(The Cherry Orchard)'

5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14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몰락한 어느 귀족가문의 일상 이야기.

프랑스극단 Les Moutons Noirs '루이 블라스(Ruy Blas)'[폐막작]

5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음모, 권력, 복수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손열음의 모던 타임즈

신설령 음악평론가



‘모던 타임즈’를 주제로 한 손열음의 피아노 독주회가 3월 5일 영화의 전당에서 있었다. 독주회 주제가 시선을 끈다. 연주자가 관심 있는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이다. 그래서 손열음이 선택한 곡은 이 시기에 작곡된 작품들이다.

20세기라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예술가들은 그들이 맞이한 새 시대를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는 격동의 시대였던 근대 초기, 슈테판 츠바이크가 〈어제의 세계〉에서 그 시대의 예술가들에 대해 증언하며 “모든 영역에서 가장 거친 실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던 때, 그리고 음악은 새로운 음조를 찾아내고, 아름다운 멜로디 대신 리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기존의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던 시대의 음악에 관심을 둔 것이다. 요즈음 음악학의 새로운 연구분야 중 하나는 ‘음악연주연구’라

는 분야이다. 음악작품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많았지만 이제 연주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주자가 선택하는 연주곡목에는 연주자의 관심과 철학을 엿볼 수 있어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던 타임즈’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주에 임하는 손열음의 연주곡목은 주목된다.

첫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왈츠’를 편곡한 아돌프 쇼츠 에블러의 ‘아라베스크 변주곡’으로, 근대 이전의 낭만주의시대 음악을 무대로 불러낸다. 이 곡에서 손열음은 다양한 솔로 악기를 불러내어 노래하게 하고, 모든 악기가 함께 투티(Tutti)에 이르게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음악을 통해 낭만적인 참으로 낭만적인 시대를 그려내었던 연주자는 이제 근대 음악사의 문을 연다. 그 시작은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이다. 시대는 변하고 쇠베르크는 신음악의 시대를 열고, 라벨은 이전 시대의 음악적 틀을 가져왔으나 거기에 새로움을 담아내고,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피아노 독주회 후반부는 재즈의 시대가 열리던 때 그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슈인의 곡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잠시 손열음은 거슈인의 음악으로 젊음을 즐긴 후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를 연주한다. 손열음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양한 음색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장면을 그려낸다. 3악장 ‘사육제’에서는 그녀가 직접 러시아의 축제를 즐기는 듯하다. 손열음의 넘치는 에너지가 ‘사육제’를 통해 표출된다. 그리고 마지막 곡 ‘라발스’에서 손열음의 강력한 타건과 막힘없는 에너지가 분출되고, 그의 음악적 집중력은 청중의 완벽한 몰입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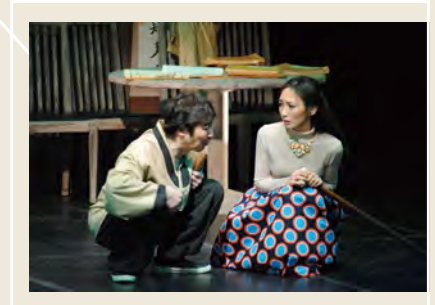
손열음의 연주회를 통해 우리는 근대 음악사를 읽고, 새것을 갈망하던 이들의 예술적 창의력을 보고, 음악적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우리의 오늘과 어제 사이의 모든 다리는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손열음은 그 끊어진 다리를 이어 어제의 세계에 오늘이 잇대어 있음을 보여준다.

Review

안녕을 탐색하기 위해 넘는 역사 기행

- 부산시립극 '영월행 일기' (이강백 작, 허영길 연출)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인 <영월행 일기>는 광종필 예술감독 부임 이후 처음 올리는 공연이다. 시립극단은 올 한 해 기획 주제를 '부산연극 역사의 힘'으로 정하고, 부산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술감독은 자신의 첫 연출 기회를 부산연극계의 원로인 허영길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허영길은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를 선택하였다. 한국 최고의 극작가 이강백과 부산연극의 인연은 각별하다. 먼저 26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연출가 허영길과의 만남이 있다. 1990년 당시 <칠산리>를 연출한 허영길은 전국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1999년에는 광종필이 <느낌, 극락 같은>을 연출하여 전국연극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연출상, 연기상을 휩쓸었다. '부산연극 역사의 힘'이 이강백의 희곡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영월행 일기>는 그 '역사의 힘'을 되새기는 첫 번째 기념비이다.

극의 제목이자 제재인 '영월행 일기'는 세조 3년(1457년)에 신숙주의 하인이 쓴 가상의 일기

책이다. 고문헌 연구가 '조당전'은 인사동 고서점에서 우연히 그 책을 구입하게 된다. 일기에는 신숙주와 한명회의 노비가 영월에 유배된 노산군(단종)의 안색을 살피고 오라는 명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영월을 오가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 길에서 두 노비는 자유와 사랑을 꿈꾸게 된다. 극의 주된 행위는 조당전이 그 책을 팔려고 하였던 '김시향'을 만나면서 전개된다. 두 사람은 일기의 내용을 따라 세 차례의 영월행을 극중극으로 재현한다. 그 재현의 여정을 지켜보는 동안 관객들은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는 권력의 속성과 그에 따른 굴종과 저항의 역사를 성찰하게 된다.

이강백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장하는 '문학적 연극'에 심혈을 기울여온 극작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연극성을 중시하는 연극인과 심각하게 길항하기도 한다. 1998년에 <느낌, 극락 같은>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유명한 사례이다. 연출을 맡은 이윤택이 텍스트가 "너무 지루해서 몸이 뒤틀릴 정도"라고 비판하였고, 이강백은 "어차피 공연은 일회적인 것이고 텍스트(희곡)는 남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격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강백의 문학성을 특유의 연극성으로 전환시켜낸 이윤택의 연출은 압권이었다. 당해 서울연극제에서 대상·희곡상·연출상·신인여자연기상·무대예술상을 석권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 이듬해에 광종필이 이룩한 전국연극제에서의 성과 또한 이강백의 문학성을 연극성으로 승화시켜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번 시립극단의 '영월행 일기'는 이강백의 문학성이 완연하게 승리를 거둔 공연이었다. 시립극단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텍스트의 무대적 재현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었기 때문이다. 연출이 없어도 되는 연극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다. 무대에서 만나지 못했던, 영월로 가는 봄의 길목에서 날아오르던 노랑나비떼와 장마로 불어나 청령포를 감돌던 평창강의 짙푸른 물빛, 그리고 추수 끝난 들녘을 지키던 허수아비떼와 능히 살아있는 듯 단종을 보필하던 사육신과 생육신의 인형들이.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한다. '부산연극의 힘'이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일 것을, 부단히 뛰어넘을 것을.

2016 부산연극제

일 시 | 4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중극장,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시민연극제 무료,
1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6 부산연극제.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4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창작 초연작들의 경연무대인 'IN Stage',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OFF Stage',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일정

■개막식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개막축하공연 '한 여름밤의 꿈'

1일 금요일 오후 8:00, 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세익스피어의 희극 '한 여름밤의 꿈'을 조선시대로 배경을 옮겨 색다르게 연출한 극단 에저또의 개막 축하공연 '한 여름밤의 꿈'.

■부산시민연극제

1일 금요일 오후 4:00, 5:00, 2일 토요일 오후 2:00, 3:00, 4:00, 5:00, 3일 일요일 오후 2:00, 3:00, 4:00, 6:30 소극장

남구복지관 한우물, 오로라,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모래알드라마팀, 시민극단 싹, 시민극단 배우로 배우다, 교육극단 꼭두·청소년극단 허물라기, (사)부산색동어머니회, 청소년극단 야호 등 9개팀 참가.

■극단 누리에 '구멍 속 구멍'[IN Stage]

4일~5일 월~화요일 오후 8:00 중극장
개인 소유의 돌섬인 '개안도'를 찾은 정태와 수인은 반복되는 나무상자 만들기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던 중 어느 날 느닷없이 불법 포획한 고래가 들어오면서 무시무시한 일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게 되는데...

•작/염지영 •연출/강성우

■극단 사계 '하녀들'[OFF Stage]

5일~6일 화~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하녀 쓸량주와 끌레르는 자신들이 섬기는 여주인을 증오한 나머지 마담을 흉내내고 실제로 마담을 독살하기로 하나 결국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담 역할을 한 끌레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원작/장주네 •연출/김만중

■극단 세진 '모의'[IN Stage]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해의 주식시장의 몰락으로 추락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시장과 그 주변인물을 둘러싸고 서로 속고 속이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모의'.

•작/이중세 •연출/김세진

■극단 다섯손가락 '만복사'[OFF Stage]

8일 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6:00

소극장

어느 날 밤에 두 도둑꾼이 만복사라는 절에 도둑을 하러 찾아온다. 두 사람은 지겨운 밤을 달래기 위해 저포놀이하게 되고 게임 도중 우발적인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원작/신호권 •연출/홍유

■극단 이야기 '당금'[IN Stage]

10일 일요일 오후 6:00, 11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양반집 규수로 부러울 게 없는 당금은 재담꾼 세준과 사랑에 빠지거나 초라니패가 다른 장터로 떠나면서 둘은 이별을 하게 된다. 몇 달 후 임신사실을 들킨 당금은 광에 갇히게 되고 다시 돌아온 세준은 당금부지의 지시로 매질을 당하는데...

•작/서화성 •연출/박현형

■극단 누리에 '수업'[OFF Stage]

11일~12일 월~화요일 오후 8:00 소극장

지방의 작은 도시에 한 교수가 젊은 여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인다. 수학, 언어학으로 이어지는 수업은 서로간의 소통불능으로 미로 속으로만 빠져들어가 고 결국 교수의 제도적인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은 교수를 흥분시키는데...

•원작/이오네스코 •번역/오세곤

•연출/홍유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표풍'

[IN Stage]

13일~14일 수~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신라의 귀족 윤희의 횡포를 피해 숨어 사는 아비에 게는 아들 안장과 청장이 있다. 윤희의 계약에 의해 아비는 부역죄로 끌려갈 지경에 처하게 되고 아버비를 살리기 위해 안장과 아버의 죽마고우의 딸 슬이는 윤희의 명으로 숨어사는 귀금선생을 찾아가는데...

•작, 연출/최은영

■극연구집단 시나위 '바람, 바람'[OFF Stage]

14일~15일 목~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작곡가로서 히트친 곡이라고는 20년 전 발표한 '어제 내린 비'가 전부인 남자에게 얼굴을 봉대로 칭칭 감은 한 여자가 작곡을 의뢰한다. 남편을 위해 곡을 만들고 싶다는 여자, 1990년 봄 최대의 히트곡인 가수 최성수의 '잊지 말아요'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 연출/정경환

■극단 배우창고 '금제록'[IN Stage]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영남의 선비 윤재수는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가락지를 밀친 삼아 과거 길에 오르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작, 연출/주혜자

■시상 및 폐막식

17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Torre del Lago Puccini Festival

아티스트 초청공연

오페라갈라콘서트 '3 테너 콘서트'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



62년 전통의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를 기리기 위해 푸치니가 살았던 토스카나주(州) 작은 호수마을 토레 델 라고에서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은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단과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하는 국제적인 오페라 페스티벌로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드라마틱 테너 루벤스 펠리치리, 기본에 충실하는 진정된 아티스트 테너 파올로 안토네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목한 테너 니콜라 파미오 등 이탈리아 정상급 테너와 부산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소프라 박현정, 아름다운 소리걸을 지닌 바리톤 조현수가 출연, 이태리 오페라의 진수를 선사한다.

•예술감독/디노 데 팔마

•피아노/최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일 시 |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

한국 지휘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최수열이 객원지휘하고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스니스트 최영진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8회 정기연주회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2010년 독일의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의 아카데미(IEMA) 지휘자 부문에 동양인 최초로 선발되면서 1년 동안 부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한 지휘자 최수열은 지난 2013년 9월, 차세대 지휘자 발굴을 위한 정영훈의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발탁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서곡

로시니/바순협주곡 '실험적 협주곡'

슈만/교향곡 제1번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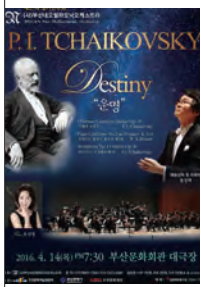
•지휘/최수열(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협연/최영진(바순, 도쿄 필하모닉 수석)

•객원악장/전용우(KBS 교향악단 악장)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P.I.TCHAIKOVSKY의 Destiny '운명'**

일 시 |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8515-7020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매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화려하면서도 기품있는 연주와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인 '이태리극곡', '교향곡 제4번'과 모차르트 협주곡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상임지휘자)
- 협연/오신정(플루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고성현 & Opera Stars**

일 시 | 4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세계가 인정하는 바리톤 고성현과 유럽 최정상 오페라 가수들이 펼치는 오페라 갈라무대 '고성현 & Opera Stars'.

실력파 마에스트로 디에고 크로베티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베르디아노(베르디 오페라 가수) 바리톤으로 유럽 무대에서 호평 받은 바리톤 고성현과 완벽한 고음과 서정적인 음색의 테너 디에고 카바쎌,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넬로 산티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소프라노 세레나 다오리오,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무대 위의 팔색조 메조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쉬볼레토가 출연, 비제 '카르멘', 푸치니 '라보엠', 베르디 '일트로바토레',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등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한다.

- 연주/Korea Wind Consort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

일 시 |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2, 310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상실과 아픔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부산 MBC 아나운서 박유라의 해설, 소프라노 김민지, 엘토 정은영, 테너 이은민, 베이스 김정대가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로 비누방울과 같이 덧없이 죽어간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여운 넋을 기리는 고은하 시인의 추모시에 곡을 붙인 임채일의 곡을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 담당 최석태가 오케스트레이션한 추모곡 '비누방울'과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이자 마지막 걸작인 '레퀴엠'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임선혜 리사이틀 with
헬무트 도이치**

일 시 | 4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에 이어 세계 정상의 한국 소프라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건반의 마술사 헬무트 도이치가 들려주는 예술가곡여행.

투명하고 서정적인 음색과 변화무쌍하고 당찬 연기력으로 호평 받고 있는 임선혜는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유학 중 23살의 나이에 필립 헤레베에게 발탁되어 유럽무대에 데뷔한 후 투명하고 서정적인 음색과 변화무쌍하고 당찬 연기력으로, 유럽의 자존심인 고음악의 정상에 우뚝 선 동양인이자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격찬받아 왔다.

임선혜와 헬무트 도이치와의 완벽한 호흡이 기대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에서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말러의 가곡을 비롯 스페인, 아르헨티나 작곡가의 곡에 이르기까지 정통 클래식적 정수인 주옥같은 예술가곡을 들려준다.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어린시절부터 피아노 듀오 활동을 펼쳐온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 박미정으로 구성된 소리나 피아노 듀오의 무대.

소리나(Sorina)는 '소리'라는 우리말과 하나라는 뜻을 지닌 이태리어 'una'의 합성어로, 두 사람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붙인 이름이다.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석사 및 Graduate Diploma, 론지음악원 피아노 연주 Artist Diploma, 보스턴대학교(피아노연주 박사학위)를 졸업한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강익전 담교수, Sento Chamber Society, Piano Trio Place 멤버로 활동 중이며 선화예고 재학 중 도미, Walnut Hill School for the Arts와 뉴잉글랜드음악원(학사 및 석사), 보스턴대학교(피아노연주 박사)를 졸업한 박미정은 현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I 시마노프스키 콰르텟**

일 시 | 4월 20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현악 사중주단 '시마노프스키 콰르텟'과 한국의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출연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hamber Series' 첫 번째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아가타 심체프스카, 그레철히고르츠 코토우, 비올리스트 볼로디야 마이키티카, 첼리스트 마르친 시에니아브스키로 구성된 시마노프스키 콰르텟은 세계 유명 콩쿠르를 통해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유수 공연장과 국제음악제를 통해 그 명성을 쌓아왔다. 타고난 균형감과 논리정연한 해석으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2004년 제21회 포르투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및 베토벤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후 저력있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김성연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올웨이코리아 070-8254-1918
 ...



계명대학교와 미국 노스텍 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학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외래교수, 대구남성합창단, 서울 주님의교회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성연 독주회.

미국 카네기홀 데뷔무대를 비롯해 스타인웨이홀, LA, Dallas, Houston, San Antonio, Bulgaria, Taiwan, Philippines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성연은 미국성악 교수협회에서 전체투표로 한 해 한 명에게 주는 '올해의 반주자상' 클래식과 뮤지컬 두 부문에서 3년 연속(2013~2015년) 수상하며 솔리스트와 챔버 연주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다.

[프로그램]

마스네/멜로디(엘레지)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6번 '고별'
 알베니스/여행의 인상 작품 71
 블럭/에덴의 정원 중 '백의 키스' 등

부산시립극단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일 시 | 4월 20일~22일 수~금요일 오전 10:00~ 오후 5:00 **소극장, 국제회의장**
 입장료 | 무료(어린이 연극 '곰사들이 망가지'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7, 3107
 ...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6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부산시립극단이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러시아의 문호 표트르 파블로비치의 동명의 어린이소설을

무대에 옮긴 어린이극 '곰사들이 망가지'를 비롯해 부산 유일의 인형극단 '인형극단 예예'의 인형극 '늑대의 하소연', 초록마술사 김경남의 마술쇼 '재미있는 마술 여행', 어린이극단 끼리프로젝트의 뮤지컬 '모해? 모해?'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장르의 연극에서부터 극동방송전속어린이합창단과 해운대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요,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김시하, 박소연, 엄남이, 임혜정 4인 음악회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시하, 엄남이, 임혜정과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등 4명의 여성 성악가들이 꾸미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소프라노 김시하는 Leopold Mugnone 국제콩쿠르 1등, 도니체티 특별상, Giuletta Simonato 국제콩쿠르 2등, Archimede 국제콩쿠르 2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소프라노 엄남이는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차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프라노 임혜정은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메조소프라노 박소연은 현재 Dunamis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래식 재즈를 품다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클래식과 재즈가 만나는 색다른 무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래식 재즈를 품다'. 상임지휘자 김병수가 이끄는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 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재즈가수 위나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KBS PD, 부산재즈협회 회장이자 KBS FM '4시의

뮤직파일' DJ, 음악공간 '라디오' 대표인 도병찬의 해설로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 재즈의 즉흥 연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2009년 7월,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연주자들로 창단한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1~Ⅶ), 애니메이션음악회(11회),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연간 30회 이상), 열린 음악회 등 클래식과 타 장르 음악과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프로그램]

Calvin Custer(편곡)/Duke Ellington!(Don't get around much anymore, Till you hear from me, Sophisticated Lady)
 모차르트(Mike Lewis 편곡)/Amadeus grooves Erroll Garner/Misty
 척 멘지오니(Bob Phillips 편곡)/산체스의 아이들
 칙 코리아(John La Barbera 편곡)/스페인 등 수록

2016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

우리 음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이 이정필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김희조(편곡)/서용석류 대금산조와 관현악을 위한 산조
 정대석/거문고협주곡 '달무리'

김계옥/25현가야금협주곡 '궁타령의 멋'
 강상구/해금협주곡 '세상풍경'
 이경섭/설장구협주곡 '소나기'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협연/최희진(25현가야금, 부산대학교 4학년)
 김동현(대금, 부산대학교 3학년)
 김주은(거문고, 부산대학교 4학년)
 김현주(해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재학)
 김준호(설장구, 부산대학교 2학년)



무용의 날 특집 '무용가와 그 무용'

일 시 | 4월 24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로고현대무용단 200-7822

무용 예술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춤의 날(World Dance Day, 4월 29일)'을 맞아 로고현대무용단이 기획한 특별한 무대. 무용을 자주 접하지 못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래된 향아리'에 이은 세 번째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한 신작으로 한국전통무용인 승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승무 2016'에 이어 무용인의 인간적 향기와 예술적 정신을 그린 로고현대무용단의 2011년 초연작을 윤선홍의 재안무로 무대에 올린 '차향', 현대사회의 심리적 긴장감을 다룬 초연작 '권력의 파괴' 등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장정운
- 출연/장정운, 권기주 외 10명



제1회 신문법 제자 고법발표회 '흥보가'

일 시 | 4월 24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583-7958, 010-9231-7066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일통김청만 선생의 명맥을 이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장이자 부산예술대학교 교수인 신문법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고법발표회.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제2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세대 실력파 소리꾼 김미진의 '박녹주제 흥보가'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 박성희 명창의 '미산제 흥보가' 주요 대목을 고수 장재령, 박상영, 전정현, 최정욱의 고법연주로 들려준다.

- 고수/신문법(특별출연), 최정욱, 전정현, 박상영, 장재령
- 소리/박성희, 김미진
- 해설/정영진



제2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 시 | 4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지은 010-2333-2544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최지은, 박정희, 서혜리 교수를 중심으로 피아노 전공 학생들과 함께하는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리스트, 쇼스타코비치,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등 청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옥같은 피아노 앙상블을 들려준다.

- 연주/최지은, 박정희, 서혜리, 최영주, 김조은, 박정현, 정유림, 박지혜, 김현지, 한지현, 정민지, 양현영, 김예지, 손소미, 이윤호, 심선영, 김유진

무지카비바 제25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시대로의 여행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무지카비바 010-2888-0292



지난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우소라, 홍기정, 오근영, 비올리스트 박주연, 박소영, 첼리스트 전명희, 심어라, 더블베이스 주자 박희철로 결성된 무지카비바 앙상블 정기연주회. 무지카비바는 바로크에서

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실내악 연주로 관객과 호흡하며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오고 있다 '바로크 시대로의 여행'이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시대부터 연주되고 있는 악기 쳄발로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과의 협연을 통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박경희(바이올린)
- 가야금/이지영(서울대학교 교수)
- 바이올린/김동욱(부산대학교 교수)
- 쳄발로/김희정(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플루트/이화영(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찬조출연/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은실 010-3304-5154

지난 1991년 음악대학 교수, 강사, 연주자 등 전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단체인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가 마련한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곽예림, 오소라, 서혜리, 강남길, 박지은, 황인교, 윤지영, 이윤정, 고은경, 장진이, 박태희, 배수정 등이 출연, 솔로 및 듀오 등 피아노 연주의 다양한 매력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김브람스/6개의 피아노소품 작품 118
 샤브리에/환상적 부레
 슈만/환타지 다장조 작품 17
 라벨/라발스 등



운아(芸娥) 제갈삼 교수 망백(望百) 기념 음악회

일 시 | 4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의 최고령 음악가인 운아(芸娥) 제갈삼 선생(91세)의 망백(望百)을 기념한 특별한 무대. 1976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에 솔한 제자들을 길러낸 제갈삼 선생은 1990년 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장을 맡으면서 부산솔리스트앙상블, 부산피아노

- 듀오협회, 부산반주자협회를 결성, 부산지역 클래식 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큰 힘을 쏟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생이 몸담고 있던 부산 1세대 피아노트리오인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인 첼리스트 배중구 전 동아대학교 교수(87세)와 지금의 부산피아노트리오를 이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동의대학교 교수의 피아노3중주 무대도 펼쳐진다.
- 피아노/제갈삼, 정소연, 이희영선
 - 바이올린/백재진
 - 첼로/배중구
 - 소프라노/김유섬(반주/박미은)
 - 합창/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상철, 피아노/이승윤)

노엘합창단 제5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노엘합창단 010-5796-1115



창단 50년이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노엘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지난 1961년 부산지역 크리스찬 남녀 고교생들로 창단된 성가합창단으로 역사를 이어오다 1999년 노엘동문들과 함께 성인합창단으로 재정비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노엘합창단은 2011년 창단 50주년을 맞아 전국청소년합창축제를 개최하며 부산지역 합창문화를 이끌어왔다.

'봄꿈'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 성가곡과 한국창작가곡, 그리고 타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흥겨운 아프리카 민요들과 추억 속 가요들을 선곡, 관객들과 함께하는 재미나는 무대를 펼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민화
- 특별출연/박기국(하모니카)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BN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I

러시아음악여행-그두번째여정

일 시 |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 지난 2월 '차이코프스키편'에 이어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 하차투리안, 림스키-코르사코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윤승업이 객원지휘하고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주은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된다.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윤승업은 지난 2007년 Leipzig Hochschule Orchestra를 지휘하면서 세계적인 거장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협연자 이주은은 2006년 스페인 하엔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입상을 시작으로 이태리 칼라브리아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 카사그란데 국제피아노콩쿠르 Premio Speciale상 등 다수 입상한 바 있다.

미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일 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70-8265-0776, 010-2752-9923

작은 무대의 오페라 공연을 통해 대중이 오페라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미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이번 무대에서는 솔로 위주의 주옥같은 아리아와 중창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출연 성악가들의 감성적 연기와 대사로 관객들에게 더 나은 스토리의 이해와 재미를 선사한다.

- 총감독/박종준
- 출연/소프라노 왕기현(비올레타), 테너 장지현(알프레도), 김기환(조르조)
- 실내악연주/피아노 김경미, 바이올린 금성빈, 플루트 유주영



손은혜 귀국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 5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선화예고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 모차르트음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귀국한 클라리넷리스트 손은혜 귀국독주회.

손은혜는 그동안 독주회와 실내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적 폭을 넓혀왔으며 현재 경성대학교에서 후

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프랑세/주제와 변주
- 브람스/클라리넷소나타 제1번 작품 120
- 도니체티/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Study' 제1번
- 모차르트/클라리넷오중주 K.581 가장조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일, 9일 공연없음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4월 16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 모차르트/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무지크 중 1악장
- 엘가/사랑의 인사
-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중 '꽃의 왈츠'
- 비발디/'사계' 중 '봄' 1악장
- 슈람멜/'비엔나는 언제나 비엔나' 행진곡
- 필모어/라수스 트롬본 등 수곡
- 현악4중주/Violin I 조은비, Violin II 김만실, Viola 박성은, Cello 정지은

- 금관5중주/Trumpet I 김세운, Trumpet II 김신희, Horn 부상형, Trombone 정현빈, Tuba 이석중, Set Drum 이창섭

4월 23일 부산우드윈드소사이티어와 함께하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프로그램

- Feather Theme(영화 '포레스트 검프'),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인생의 회전목마(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Love Theme(영화 '시네마천국') 등 수곡
- 연주/김윤희(플루트), 유지훈(클라리넷), 진승민(피아노), 김영민(호른), 변지윤(바순), 박시연(오보에)

4월 30일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로이멘 앙상블 노 프레이밍 심리클래식'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소속 앙상블로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 플루티스트 유주영, 피아니스트 김경미로 구성된 로이멘 앙상블의 무대. 작곡가 나실린이 기악곡으로 편곡한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슈만 '시인의 사랑'을 음악심리치료사인 김성애의 해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Music 음악

한국, 이탈리아 합작 오페라 '리골레토'
 일 시 | 4월 1일 금요일 오후 8:00, 2일 토요일 오후 3:00, 8:00 소함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4만원
 문 의 | 뉴아시아오페라단 1600-6867



이탈리아 주세페 베르디 극장의 최고 연출가 에르메네찌아노 람비아제와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베르디의 오페라를 갱스터와 무질서가 혼돈하던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오페라 '리골레토'는 현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탈리아 전통 오페라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 지휘/손민수 • 연주/네오폴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 출연/바리톤 박대용, 김기환, 오승용, 소프라노 이윤경, 실은경, 왕기현, 테너 이장원, 한우인, 장지현, 베이스 박기범, 메조소프라노 이정윤, 베이스바리톤 이철훈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오후 마련하는 토요일신명무대.

2일 프로그램
 여민락, 궁중검무, 좌수영 어방놀이, 거문고 중주곡, 창작성악, 동래하춤, 판국

16일 프로그램
 종묘제례악, 생소병주 '수롱음', 양소병주 '시령산', 처용무, 산조합주, 태평무, 남도민요, 신명의 춤 '태'

23일 프로그램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제13회 정기공연

30일 프로그램
 관현악 '신내림'(박범훈 곡), 성악협주곡 '울고 분노하는 산'(김기영 곡), 해금협주곡 '흔무'(도날드 워맥 곡), 대금협주곡 '풍류'(계성원 곡), 가야금협주곡 '새봄'(황병기 곡, 김만석 편곡), 피리협주곡 '가산향'(원일 곡)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앙상블 파시오네 챔버 콘서트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그동안 수많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 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계명대학교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데트몰트 국립음대 실내악 마스터과정 출신한 바이올리니스트 박혜련,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Bad Leopolden, 독일 Gengenbach 국제아카데미를 수료한 첼리스트 박승원, 계명대학교와 국립 폴란드 쇼팽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 피아노 솔로, 피아노 앙상블 전문연주자과정을 수료한 피아니스트 황은진으로 구성된 앙상블 파시오네의 무대로 꾸며진다.

국민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전국 순회연주 음악회 III-부산

일 시 | 4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02-910-4464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과 함께 귀국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을 초대 학장으로 지난 1946년 설립된 국민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국 순회 연주회 부산공연. 피아니스트 이선경, 윤철희, 윤영화, 피경선 등 국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과 피아니스트 김민숙, 김선아, 한지은, 오정선, 여은영, 심희정이 출연,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드뷔시/백과 흑으로(En blanc et noir) L.134
 라흐마니노프/Valse & Romance
 윌리엄 볼컴/에덴의 정원 중 '뱀의 키스'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바흐/시칠리아노 등 수곡

제5회 라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이지 클래식(Easy Classic)

일 시 | 4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라무지카앙상블 010-4560-5322, 010-9321-6209

'어렵지 않은 클래식 음악'을 모토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무대를 꾸준히 열어온 라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 우소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이성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 김관수, 경상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성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라무지카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고전주의 대표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최유리 해금독주회 How sweet the sound

일 시 | 4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유리 010-3994-4674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있는 해금주자 최유리 독주회. 최유리는 현재 앙상블 헤미올라 리더, 해금·아쟁 연주단 해이연 단원, 해금 연구회 회원, CTS퓨전앙상블 단원으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기존 해금독주곡들을 새롭게 재해석, 서양악기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해금과 첼로가 어우러지는 '해금가락'을 비롯해 해금, 비올라, 첼로가 함께하는 '한밤수류 해금산조 3중주', 현악4중주 반주에 맞춘 '적림', '활의 노래'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조무중, 송범석
- 비올라/신요한
- 첼로/이일세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6일 파리에서 온 편지



소프라노 강소영, 베이스 박상진, 기타리스트 고종대, 바이올리니스트 마티유 바두엘, 첼리스트 조선일, 피아니스트 최진현, 박소미가 출연, 불랑, 라벨, 롤랑 디용, 클레냥, 쇼송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주는 '파리에서 온 편지'.

프로그램

불랑/Cinq Poemes De Max Jacob
라벨/필시네를 만난 돈키호테
롤랑 디용/Lettre a la Seine-Noire-Nordestine 등

• 해설/천동혁

20일 칸다테 앙상블이 드리는 봄의 선물

테너 김경민,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시영민, 베이스바리톤 양중근이 들려주는 봄의 향연. 봄을 노래하는 국내외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

아, 가요 메들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살짜기 읊서예, 명대, 산들바람, 청산에 살리라, 보리피리, 가곡메들리, 우리들은 미남이다, 슈베르트 '마왕',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 파파게노!' 등

• 피아노/김효성

27일 제12회 글로리아이어 가족음악회



1982년 6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글로리아이어 가족음악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리아이어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부산 라이트 하우스 아동 돕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돕기 등에 기탁하면서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 지휘/이정철 • 반주/박성미, 이경미
- 출연/소프라노 김미경, 이유진, 김이경, 박진영, 이주현, 멜로 박신영, 테너 김명훈, 김명일, Sisco Loga, 바리톤 김동현, 콘트라베이스 이민석
- 혼성듀엣/강예진&김준혁, 박해성&김효원

신시아(Cincy-A) 피아노 트리 오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Cincy-A 010-2802-1672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동문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수학하며 쌓은 기량과 다양한 연주경험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 피아니스트 김은정으로 구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Cincinnati(신시내티)를 인연으로 만난 Artists'라는 뜻을 지닌 신시아(Cincy-A) 피아노 트리오의 지난해 부산과 대구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동문음악회, 월드브리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김해국제음악제 우수 신인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열정을 전하며 관객과 소통해왔다.

프로그램

제니퍼 학턴/피아노트리오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스메타나/피아노트리오 사단조 작품 15

하늬챔버앙상블 2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4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매회 연주마다 새로운 시도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선정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 온 하늬챔버앙상블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현해은(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과 해외 명문 음악대학 출신으로 화려한 연주경력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늬챔버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클래식 명곡들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6중주라는 흔하지 않은 구성으로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차이코프스키 현악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을 하늬챔버앙상블만의 풍부한 색채와 환상적인 앙상블로 들려준다.

- 지휘/서진
- 협연/송희송(첼로), 김주희(첼로), 황대진(비올라)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목요상설 '천 원의 행복'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마지막주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로 진행)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균일 1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목요상설무대 '천 원의 행복' 4월 무대

7일 플레이스백 '시네마 뮤직&클라리넷'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경상지역 출신의 클라리넷리스트로 구성된 플레이스백의 무대. '벡(Bec)'은 프랑

스로 클라리넷의 마우스 스피스를 뜻하는 말로, '플레이어스백(Players Becs)'은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및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을 들려준다.

14일 콰트로 마에스트리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개방송'

미국, 이태리에서 수학한 남성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 연극인으로 구성된 융복합 예술단체 '콰트로 마에스트리'의 무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음악을 라디오 DJ의 공개방송 진행이라는 컨셉으로 구성,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에서부터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1일 나리밴드 '가(歌)족 음악회'

해금과 첼로, 바이올린 등 현악의 선율에 건반과 퍼커션이 어우러져 대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나리밴드의 무대.

27일 문화가 있는 날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악기로 김광석을 듣다'

지난해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들로 구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지휘자 없이 완벽한 앙상블을, 수석단원이라는 경계없이 멤버간의 색채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한다.



피아니스트 최은영, 한상민의 두 번째 이야기 양상블 클라쑈름 in PARIS

일 시 | 4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30% 할인)
문의 | 양상블 클라쑈름 010-9423-8004



피아니스트 최은영, 한상민으로 결성된 국내에서 보기 드문 피아노 듀오 전문 연주단체인 양상블 클라쑈름의 무대. 부산애고,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동문으로, 그동안 솔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양상블 클라쑈름을 결성한 최은영, 한상민은 지난해 3월 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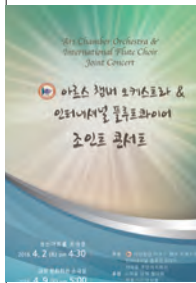
연주회를 시작으로 소민아트센터 초청 송년음악회, 스페이스 움 목요음악회, '음악이 주는 선물' 초청 하우스콘서트, KBS 'TV 문화속으로' 출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솔로연주와는 다른 다이나믹한 듀오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양상블 클라쑈름(Klazum)은 독일어인 'Klavier(피아노)'와 'zusammen(함께)'라는 두 단어를 합쳐 만든 단어로 다양한 색채의 피아노 무대와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 특별출연/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아르스 챔버오케스트라&인터내셔널 플루트 라이어 조인트 콘서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배문한 010-2557-6643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상에서 심포를 주었던 멜로디, 단순로운 생활에 흥이 되었던 그 리듬을 찾아 연령과 직업을 넘어 열정의 하모니를 만들어온 아르스 챔버오케스트라가 실력있는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플루트라이어와 함께하는 조인트 무대.

|프로그램|

- S. 조플린/레그티미 IIIIII
- 슈베르트/교향곡 제8번 단단조
- 하차투리안/가면무도회 모음곡 중 '왈츠'
-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등
- 지휘/배문한(아르스 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정승찬(인터내셔널 플루트라이어 음악총감독)
- 특별출연/테너 김준용, 바이올린 함재원, 황혜정
- 플루트 최중수, 전주희
- 아르스챔소년플루트앙상블

2016 일 디보(IL DEIVO) 내한공연

일 시 | 4월 10일 일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VIP석 25만원, VIP석 22만원
 R석 20만원, S석 17만원
 A석 15만원, B석 5만원
문의 | ㈜지니콘텐츠 02-568-8831



'팝페라계의 비틀즈'라 불리는 남성 4인조 팝페라그룹 일 디보(IL DEIVO) 부산공연. 스페인 출신 바리톤 카를로스 마린, 미국 출신 테너 데이비드 밀러, 프랑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세바스티앙 이장바르, 스위스 출신 테너 우르스 뢰러로 구성된 일 디

보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전 세계 2천6백만장 이상 앨범을 판매하고 크로스오버 앨범으로서는 첫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7집 앨범 'Amor&Pasion' 발매를 기념해 월드투어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과 로맨스를 담은 7집 앨범 수록곡을 들려준다. '일 디보(IL DEIVO)'는 이태리어로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는 뜻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첼리스트 송영훈 '나의 인생 나의 음악'

일 시 |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의 무대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4월 무대.

연주 활동 외에도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자,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송영훈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아티스트로서의 송영훈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때로는 눈물과 고통, 때로는 위로와 힘이 되는 음악을 첼로의 애절한 선율로 담아낸다.

|프로그램|

- 베토벤/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의 다정한 마음에 의한 7개의 변주곡
- 프랑크/첼로소나타 가장조
- 피아졸라/위대한 탱고
- 첼로 및 해설/송영훈
- 피아노/김재원

독일가곡연구회 제4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6856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48번째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후학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강소영, 김현주, 설은경, 장은영, 테너 김기형, 신대현, 이은민, 조순환, 피아니스트 박은희, 공소현, 김경미, 박소미, 성민주, 이화영선,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이 출연해 슈베르트, 슈만, 스트라우스, 브람스, 멘델스존 등 독일어권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봄의 찬가
- 볼프/4월의 노랑나비
- 슈만/시인의 사랑 등 수곡

음악풍경 기획특집 베스트 뮤지션 5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일 시 | 4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그동안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해온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를 통해 가장 빼어난 연주력을 과시한 5명의 솔리스트를 초청해 마련하는 기획특집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베스트 뮤지션 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신시내티움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정을 졸업하고 현재 Cincy-A Trio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정을 졸업하고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누벨 바그 멤버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미국 신시내티움대 연주학 박사(D.M.A)를 취득하고 미국 Bradshaw&Buono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은정, 일본 오사카(大阪)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명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이탈리아 라치티국제콩쿠르 전체 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신비가 출연, 빼어난 기량을 선보인다.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010-8511-3768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를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유경이 지난 1992년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의 24번째 정기연주회.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전파 곡들과 다양한 현악합주곡을 주 레퍼토리로 그동안 관객들과 다양한 무대에서 만나온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퓨전양상블 Misicante, AMOS 양상블, 미래필요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정환,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혜미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바흐,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안유경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안정환, 안혜미

스티그마 라이어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김중은 010-9909-5147



스티그마라이어 그룹 소속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선교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첫 번째 정기연주회.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신상우의 특별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여성, 혼성 합창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신상우는 드라마 정도전, 주몽, 베토벤바이러스 등 드라마 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등을 작곡한 성가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 지휘/안민, 김중은, 양재원, 박용선
- 피아노/배진희, 김현경, 김숙자
- 소년소녀 지도/장윤정
- 특별출연/신상우

비르투오조양상블 '슈만의 밤'

일 시 |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비르투오조양상블 512-4295
010-3325-8729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사랑받아온 비르투오조양상블의 무대.

창단 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비르투오조 양상블은 그동안 일본 사기현 연주, 중국 심양국제교류음악회 초청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독일문화원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슈만의 밤'이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백재진 교수와 부산피아노트리오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권준,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이일세가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3곡 중 드물게 연주되는 '피아노 트리오 제3번 작품 110'을, 신예 피아니스트 박지은과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최은해, 비올리스트 홍영선, 첼리스트 이일세가 실내악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는 '피아노 5중주 작품 44'를 들려준다.

열정의 테너 김경 초청 독창회

서른한 번째 이야기
일 시 | 4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한국 음악계의 중진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오페라 3테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열정의 테너 김경의 데뷔 2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독창회.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Alessandria 국립 음악원, P. M. Ferraro Accademia, Arena

Accademia를 졸업하고 이태리 Salerno 국제콩투르 우승, E. Bastianini 국제콩투르 우승, Jose Carreras 국제콩투르, Bel Vedere 국제콩투르 등 다수의 국제콩투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김경은 그동안 독창회 및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현재 영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경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을 비롯해 이태리 칸초네, 뮤지컬 넘버 및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아름
- 피아노/전미리

제51회 을숙도명품콘서트 TCHAIKOVSKY

일 시 | 4월 2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의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4월 무대.

동의대학교 교수 윤상운이 지휘하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현재 아이네플루트양상블 음악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영,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의 협연으로 플루트와 기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이한 형태의 협주곡인 카롤리의 '플루트와 기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사장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카롤리/플루트와 기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사장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작품 64

K·P·S 정기연주회 피아노와 함께하는 동유럽여행

일 시 | 4월 21일(목), 28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예술기획 0505-700-9798

지난 2013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고신피아노소사이어티(K·P·S)의 정기연주회.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지원, 고태욱, 정다운, 이한나, 신현희, 이은진, 선아름, 박보경, 이수미, 허에스더, 박민경, 허드보라, 김남숙이 출연,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1일 프로그램

그리그/서정 소품집
파데레프스키/피아노를 위한 Miscellanea 작품 16
바르톡/알레그로 바르바로 Sz.49
리게티/Invention 등

- 연주/김지원, 고태욱, 정다운, 이한나, 신현희, 이은진

28일 프로그램

시벨리우스/5개의 소품 작품 75
리스트/스페인 광시곡 S.254
루토슬라브스키/Two Studies for piano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46 제1번

- 연주/선아름, 박보경, 이수미, 허에스더, 박민경, 허드보라, 김남숙

A興(어흥) woodwind quintet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예빈 010-9595-3858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의 지도로 지난 2012년 창단된 A興(어흥) woodwind quintet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플루티스트 이예빈, 오보이스트 이현수, 호른니스트 조성현, 바수니스트 신연경, 클라리네티스트 이소연으로 구성된 A興(어흥) woodwind quintet은 단원 모두가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대전현대음악협회 주최 현대음악 2013에 출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거친/랩소디 인 블루
드뷔시/모음곡 제1번
뽀랑/6중주

- 연주/이예빈(플루트), 이현수(오보에), 조성현(호른), 신연경(바순), 이소연(클라리넷)
- 피아노/이수민

제21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최우수입상자 축하연주회

일 시 |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하는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최우수입상자 연주회, 차세대 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작곡, 국악, 현악, 관악, 성악, 중창, 실내악 등 각 부문에서 최고 득점으로 입상한 최우수입상자들의 축하무대로, 특히 이날 실황무대는 고음질, 고화질로 녹음, 녹화되어 디지털앨범으로 정식발매될 예정이다.

중창, 실내악 등 각 부문에서 최고 득점으로 입상한 최우수입상자들의 축하무대로, 특히 이날 실황무대는 고음질, 고화질로 녹음, 녹화되어 디지털앨범으로 정식발매될 예정이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가은예술회 연주회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대학교 동문인 김민선, 정영주, 신문정, 박주영으로 구성된 가은예술회의 무대, 김민선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이스트만 음악학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마스터클래스 및 오스트리 잘츠부르크 썸머 아카데미를 수료, 정영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 신문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썸머아카데미를 수료, 박주영은 영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대학원 연주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리드리히 부르크홀러의 에투드 전곡과 N.B.Lavignac의 8손을 위한 'Galop-Marche D major'를 들려준다.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 시즌2 소풍

일 시 | 4월 24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사전 전화예매시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김민호 010-4554-7777

현재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와 강의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의 무대.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로 구성된 12명의 연주자들이 귀에 익은 주옥같은 클래식과 파퓰러한 곡을 재미나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 비발디/사계 중 '봄'
비발디/홍방울새
비발디/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영화 '접속' OST 등 수록
- 음악감독, 지휘/김민호
 - 연주/김경서, 하지혜, 안민주, 이용현, 김민성, 김강린(플루트), 김성민(알토플루트), 김지윤(베이스플루트)
 - 협연/허연지(피콜로), 강미경, 이승은, 이미지(플루트)
 - 첼로/이지수
 - 드럼/박아론
 - 피아노/김효영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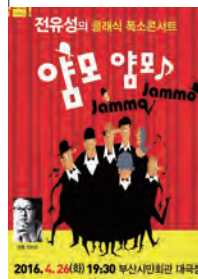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4월 무대. 음악가 베토벤과 화가 클림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와 음악가의 운명적인 만남과 두 천재 예술가의 감성에 얽힌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떠오르는 신예 지휘자 안두현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클래식 팬들 사이에 화제를 일으켰던 피아니스트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테너 추현우가 출연,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월광'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로망스, 아델라이데, 교향곡 제5번 '운명', 엘리제를 위하여 등 베토벤의 대표적 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보여주는 음악, 들려주는 그림'이라는 컨셉으로, 베토벤 명곡 외에도 황금빛 색채의 클림트 그림을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콘서트 얌모 얌모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개그맨 전유성이 연출한 요절복통 클래식 폭소콘서트 '얌모 얌모'. 나폴리 민요 '푸니쿨리 푸니쿨라'의 후렴부에 나오는 가사인 '얌모 얌모(Jammo, Jammo)'는 '가자 가자'라는 나폴리 사투리로, 기존의 딱딱하고 근엄한 클래식 공연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신나게 웃고 떠들며 관람할 수 있는 신개념 음악회이다. 이번 무대에서 한우리 오페라단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시작으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만물박사의 노래', 가곡 '그리운 금강산', 동요메들리, 가요메들리, 드라마·만화·영화 주제곡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열린음악회'

일 시 | 4월 28일 목요일 오후 6:30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입장료 | 무료
문의 |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자연과 문화가 있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에서 펼쳐지는 열린음악회.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병동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매월 정기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병수가 지휘하는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명곡과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시하
- 테너/김기형



양옥진 첼로 독주회

일 시 | 4월 28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옥진 010-2550-2880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양옥진 독주회.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줄리아드 음대, 메네스음대를 거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양옥진은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독주회와 줄리아드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kbs 교향악단, 플로프디브 국립오케스트라, 뉴암스텔담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 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 양옥진은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IPB 단원,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박민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IPB 단원,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변은석과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5회 프롬나드 콘서트 '봄의 향연'

일 시 | 4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챔버스퀘어

입장료 | 전석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4월 무대. 지난 2014년 10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이번 무대에서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봄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봄'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136 등 수곡



Play 연극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

일 시 | 2월 18일(목)~4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 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 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아빠와 돌이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나는 가난에 벗어나고자 '돈 많고 스펙 좋은 남자'가 최고라며 사랑을 믿지 않는다. 어느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고등학생으로 오해한 경찰관 현우와 엮이게 되고, 만화방을 찾은 현우가 우연히 유나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유나는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 연출/주정화
- 음악/지현수

연극 '스캔들'

일 시 | 3월 17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만 18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보잉보잉'의 작가로도 유명한 프랑스 코미극의 대가 마르크 까몰레티의 작품을 원작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변안, 각색한 성인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극.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결혼생활을 하는 우진과 고은. 어느날 우진은 고은이 친정에 가는 날이자 우진이 몰래 사귀고 있는 모델 애인 제시카의 생일을 맞아 우진의 친구인 주일도 초대하고 출장요리사까지 불러 생일파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내 고은이 친정 나들이를 취소하고 돌아오면서 의도치 않게 다섯 남녀가 한 집에 모이게 된다. 특별한 사연을 지닌 다섯 남녀의 얽히고설킨 기상천외 커튼콜 생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기막힌 반전 속에 펼쳐진다.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 4월 1일(금)~5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디오르코씨어터컴퍼니 664-7880



잠시도 눈을 땔 수 없는 긴박한 전개와 애드립조차 허용치 않는 잘 짜인 연출,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놀랄만한 반전으로 지난 1998년 초연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극작가 레이 쿠니의 연극 '라이어' 시리즈 3탄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영호는 3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과 뒤바꿔 들고온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히고 잠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가족음악극 '마당을 나온 암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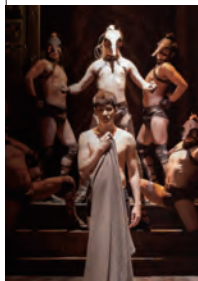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30, 3일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주)문화공 1688-8998



지난 2002년 출간 이후 150만부 이상을 판매하고 해외 25개국으로 수출된 동화작가 황선미의 동명의 원작에 국악적 요소를 가미한 가족음악극 '마당을 나온 암탉'.
알을 낳을 수 없어 주인에게 버림받은 암탉 '임싹'이 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연히 발견한 청둥오리의 알을 품어 아기를 만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부모와의 갈등, 집단 따돌림, 그리고 자립심과 생명 의식 등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소설에서 연극,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임싹' 역을 맡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위희경(가야금병창)이 구성진 소리로 배역의 감정을 전하는 등 극적 장치로서 국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연극 '에쿠우스'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만 16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극작가 피터 쉐퍼의 대표작 '에쿠우스'.
26마리 말의 눈을 쇠고챙이로 찌른 마굿간 소년의 업기적인 범죄사실을 소재로, 현대인의 존재의식과 삶의 실상을 사이코 드라마와 제의극적 방법으로 표현한 화제작으로, 1974년 런던에서 초연된 후 파격적인 비주열과 강렬한 드라마로 전 세계 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알려서 다이사트까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에쿠우스의 레전드 조재현과 준비된 신인 김윤호에서 연륜이 묻어나는 실험극장 단원까지 명품배우들의 앙상블이 극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작/피터 쉐퍼 •역/신정옥
•연출/이한승

극단 아센 제44회 정기공연 벽(부제: 주와 민)

일 시 | 4월 5일(화)~30일(토)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4:00(일요일 공연 없음)
하늘바람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5천원
문의 | 문화기획 ACTs 504-2544,
010-4802-8341



영화배우 알 파치노와 미셸 파이퍼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널리 알려진 미국 극작가 테렌스 맥널리의 '달빛속의 프랭키와 자니'를 무대에 올린 극단 아센 '벽'.
지난 사랑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는 주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자꾸만 사랑을 고백하는 민, 조금은 어눌하며 남루한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진솔한 사랑을 그려낸다.
1997년 영화 '악속'의 원작이었던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에서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 중견 연극배우 구민주, 호민이 20년 만에 호흡을 맞춘다.
•예술감독/이한 •연출/호민
•출연/구민주, 호민

2016 부산연극제

일 시 | 4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1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6 부산연극제.
■극단 도깨비 '늙은 연가' [IN Stage]
3일 일요일 오후 6:00,
4일 월요일 오후 8:00
평생 재봉틀만 돌리며 자식들을 키워 온 길녀, 그녀에게 조금씩 삶의 균열이 찾아온다. 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길녀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데...
•작/김경미 •연출/최광욱
■극단 이그라 '남은 여생의 시련' [IN Stage]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6:00
사할린 동포인 원상모와 김용희는 사할린 1세만 귀국을 받아준다는 한국의 정책에 따라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온다. 비록 계약결혼을 했지만 김

용희에게 정을 붙이고 부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원상모와는 달리 김용희는 철저하게 계약결혼을 유지하려 하고 원상모의 자격조건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용희는 다시 러시아로 강제추방될까 불안해하는데...
•작/인무학 •연출/최성우
■극단 한새별 '섬섬옥수' [IN Stage]
12일~13일 화~수요일 오후 8:00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장민주가 죽자 이제는 여당 공천후보와 대기업 상무로 있는 그의 대학동기인 권세영, 황금식이 문상을 온다. 그들 앞에 장민주의 동생 장소영, 어머니 등이 차례로 등장해 대화와 과거 회상을 통해 애증과 배신으로 혼돈스러웠던 지나간 옛날을 이야기한다.
•작/김문홍 •연출/하승호
■극단 더블스테이지 '달빛소나타' [IN Stage]
15일 금요일 오후 8:00, 16일 토요일 오후 6:00
연로한 아빠와 몸이 약한 오빠 광재를 돌보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옥선은 행복을 느낄 만큼 평범했던 일상에서 원인을 불만감을 느낀다. 옥선은 '불안감'에 대해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아빠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옥선을 외면하고 오빠 광재는 어른스럽지 못한 아빠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충돌하는데...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윤석화 연기인생 40주년 기념공연 마스터 클래스

일 시 | 4월 20일~21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영원한 아그네스' 배우 윤석화가 데뷔 4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마스터 클래스'.
'거미여인의 키스'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테렌스 맥널리의 '마스터 클래스'는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오페라의 여신'으로 불렸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살아 생전 무대 은퇴 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마스터클래스 강의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국내 초연 당시 칼라스 역을 맡았던 윤석화는 이 작품으로 그해 이해랑연극상을 최연소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극계의 대부 연출가 임영웅, 천재 마에스트로 구자범, 뮤지컬 배우 배혜선, 소프라노 이유라, 테너 이상규, 김현수 등이 무대인생 40주년을 맞는 윤석화의 특별한 동행에 함께한다.
•연출/임영웅

Event 행사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낭만DJ 최성원이

함께하는 낭만팝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30 음악감상실 Sara
문 의 | 최성원 010-9462-0037

HEALING CLASSICAL
MUSIC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분점 문화센터 교양강의실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 해설/김옥균(전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 PD, 클래식음악해설가)

제 10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음악회
봄의 그리움 시

일 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4월 무대.
1부/라벨 피아노 협주곡,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엘렌 그리모, 유럽챔버오케스트라, 2010
리처드 보나, 서부독일방송국 빅밴드, 2015
디지털레스피 칠순기념 공연, 1989
2부/칼라 블레이, 스티브 스왈로우, 1988, 2013
시카고, 2004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8차 부산사투리 시 낭송대회

일 시 | 4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5강 르네상스 시대 음악 II

일 시 | 4월 12일 화요일 오후 8시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 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 활동을 펼쳐온 곽근수는 그동안 5천여 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이번 강좌에서는 당대의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재현시켜보고, 베네치아악파와 더불어 그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음악을 이끌었던, 프랑스-플랑드르악파의 엄격한 대위법과 이탈리아 특유의 선율미를 융합시켜 지극히 아름답고 경건한 음악을 창조한 로마악파의 거인 팔레스트리나, 전설적인 작품 '미제레레'의 작곡자 알레그리 등 로마악파의 거장들을 만나본다.

Display 전시

디오라마 월드

작지만 큰 세상, 기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Open run
KNN 월석아트홀 디오라마전용관
입장료 | 어른 1만 2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디오라마전용관 1577-7600

...
철도를 주요 테마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오라마 상설전시관에서 펼쳐지는 디오라마 월드. 세계의 랜드마크 명소와 문화유적을 섬세하게 묘사한 초대형 정원 디오라마에서부터 벤츠, 페라리 등 세계 명차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오토라마, 부산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한 시티 디오라마 등 총 27개의 테마를 따라 상상여행을 떠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장태묵 목인천강展

일 시 | 2월 25일(목)~5월 7일(토)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Fragments of Image-이미지 조각
-오용석, 유비호, 이명호

일 시 | 3월 11일(금)~4월 22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제나 할러웨이(Zena Holloway) 사진전
The Fantasy_부산

일 시 | 3월 12일(토)~6월 6일(월)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전시실
입장료 | 균일 1만원(중고등학생 20%, 어린이, 경로 40% 할인)
문 의 | WSM 1566-5490



예술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사로잡은 수중사진의 대가 제나 할러웨이 사진전. 현존하는 최고의 수중 촬영의 대가인 제나 할러웨이의 이번 전시에서는 수면 아래 피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안광식 초대전

일 시 | 3월 15일(화)~4월 15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Lovely Lété, 나탈리 레테'展

일 시 | 3월 31일(목)~4월 25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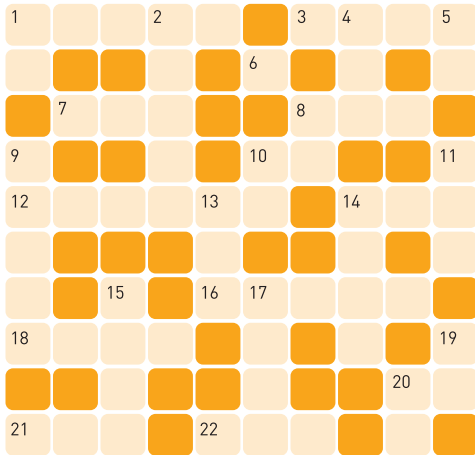


풍부한 감성과 독특한 색감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독보적으로 아트콜라보레이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나탈리 레테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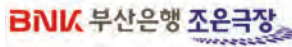
2016 꽃그림展

일 시 | 4월 11일(월)~4월 20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조은극장 | 1588-2757 | 빈센트 커피 | 051-623-0772
 큰집 | 051-245-3320



옐로인 플라워



빈센트 커피

지나호 정답



가로열쇠

-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의 축제. 4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 1977년 첫 번째 영화를 시작으로 현재 7편의 시리즈가 제작된 조지 루카스 감독의 공상과학영화 시리즈.
-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김금민 후 2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아이를 낳아 방 안에서 키운 여성의 충격적인 실화를 담은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인공인 브리 라슨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기녀의 아들로 태어나 동래현의 관노였으나 타고난 재능과 기술로 자력무와 축우기를 발명하는 등 조선 전기 과학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
-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
-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 독특한 붓놀림으로 자연의 형태와 색채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으며, 현대 회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작으로 수많은 자화상과 해바라기 연작, 별이 빛나는 밤 등이 있다.
- 가스통 르 루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1986년 10월 9일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당시 웨버가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 브라이언트를 위해 쓴 작품으로, 무명이었던 브라이언트는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크리스틴 역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 19세기 벨칸토 전통의 정점에 있는 벨리니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프리마돈나 오페라라 불릴 정도로 주인공인 소프라노의 비중이 높아 20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무대에 오르지 않았으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강렬한 목소리의 마리아 칼라스가 등장하면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극장들이 밀집해 있는 대로(大路)로 미국 연극계의 대명사로도 통한다.
-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복장을 뜻하는 '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play'의 합성어인 코스튬 플레이를 줄인 용어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영화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분장을 하는 놀이 또는 행사를 일컫는다.
- 신라 천년 역사의 도시, 서라벌.
- 유대계의 독일인 작가.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해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는다. 대표작으로 '변신', '성', '심판' 등이 있다.
- 동독 출신의 트랜스젠더 록 가수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린 록뮤지컬.

세로열쇠

-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소설. '사랑과 구원이라는 주제 속에 귀족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 사회의 부정과 부패, 하층민들의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회화와 조각의 새로운 경향으로 슈피어리리즘, 포토리얼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일상적인 현실을 생생하고 완벽하게 그려내는 것이 특징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사치처럼 극명한 화면을 구성한다.
-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소시에테 제도의 주도(主島). 폴리네시아 민족의 중심 거주지로, 17세기 이후 유럽인들로부터 '해의 낙원', '비너스의 섬'이라고 불렸으며, 특히 화가 고갱의 작품 속 배경으로 유명하다.
- 숫자 '1,000'의 옛말.
-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이자 '서양음악의 아버지'라 추앙받는 독일의 작곡가.
- 단막으로 된 반(反)극 대머리 여(女)수로 희극가에게 혁명을 일으켰으며, 부조리연극시절에 기(奇)한 루마(魯)어 태생의 프랑스극가.
- 6세기까지 대가야의 도입지로 변성을 누렸던 경북 서남부에 위치한 군(郡).
- '자구의 허파'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역면적이 큰 강(江). 페루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브라질 북부를 관류한 후 적도상(赤道)의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 매일 1억 개의 비디오 초회 수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나라로 수도는 오슬로. 오늘날에는 스웨덴 등과 더불어 사회 보장 제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로 유명하다.
-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대륙 한가운데 적도가 지나고 있어서 무더운 지역이 많다.
- 영국의 전설적인 의(義)賊. 부하와 함께 서우드 숲 속에 은거하며 귀족, 승려 등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빛나던 청춘을 담은 이준익 감독의 신작.
- 위도와 함께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지구상의 한 지점을 지나는 자오선과 런던의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本初子午線)의 교도를 그 지점의 0이라 한다.

3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 권영주(동래구 동래로)
- 김경민(사하구 까치고개로)
- 송지은(금정구 금단로)
- 윤혜란(남구 유엔로)
- 조용수(동구 진성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 강태균(해운대구 아랫반송로)
- 송재은(동래구 총렬대로)

빈센트 더치커피

- 이규형(중구 광복중앙로)
- 이미경(연제구 월드컵대로)

큰집 식사권

-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 이종석(서구 해돋이로)
- 이지영(남구 용호로)
- 조영훈(수영구 좌수영로)
- 황용주(북구 화명신도시로)

조은극장 초대권

- 권혜진(수영구 감포로)
- 배경아(수영구 수영성로)
- 심정희(해운대구 장산로)
- 윤희경(북구 산성로)
- 정진욱(부산진구 월드컵대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RECORD



❖ Nikolaj Znaider / Riccardo Chailly(DVD)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바흐 파르티타 1번 중 '사라방드', 파르티타 2번 중 '사라방드'
리카르도 샤이(지휘), 니콜라이 즈나이더(바이올리니스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와 거장 지휘자가 만나 이뤄낸 멋진 결실

2012년 9월(멘델스존)과 2014년 10월(베토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공연 실황이다. 1975년생으로 덴마크 출신 유대계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라이 즈나이더는 16세인 1992년 제4회 카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997년 대망의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즈나이더는 이 영상물에서 북구의 풍광을 연상케 하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청명한 음색으로 칸타빌레를 충분히 살려 연주하며, 베토벤 협주곡 2악장 등 일부 대목에서는 가필한 버전으로 연주하는 등 치열한 탐구심도 보여주고 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샤이는 이번 공연에서 정감있으면서도 중후함이 돋보이는 반주로 즈나이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 BRAHMS CYCLE(3DVD)

브람스 교향곡 전곡, 협주곡, 서곡, 변주곡

프란츠 뵘저-뫼스트(지휘), 예핌 브론프만(피아노),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The Cleveland Orchestra

▶ 1080p Full HD로 만나는, 브람스의 진정한 깊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상물
브람스의 교향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을 포함해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과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함께 한 협주곡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중요한 서곡과 변주곡을 총망라하고 있는 역사적이고도 의미 있는 영상물 전집이다. 클리블랜드 세베란스 홀에서 2014년 1월과 2월, 9월에 열린 브람스 치클루스 실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가장 먼저 1080p Full HD의 고화질을 통해 전달되는 세베란스 홀의 아름다움과 음악가들의 영상미는 이전 영상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협연자로 등장한 브론프만과 피셔는 이들 작품에 대한 최고의 해석가들로 지휘자 뵘저-뫼스트와 함께 진정한 브람스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 마리아 안손스(DVD)

드보르작 교향곡 9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마리스 안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 마리스 안손스의 진정한 명연과 모습을 담다

지금까지 마리스 안손스가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를 여러차례 레코딩하고 영상물도 발매했지만, 아마 여기 수록된 2015년 11월 뮌헨 레지덴츠 궁전 내에 위치한 헤르쿨레스살 실황만큼 완벽하지는 않다고 장담할 수 있다.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일사분란하고 혼연일체된 앙상블과 완벽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연주력, 남부 독일 악단 특유의 고옥한 음색과 격조 높은 향기는 감동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1080p Full HD로 재생되는 4K 카메라가 잡아낸 헤르쿨레스살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통해 바이에른 왕가가 추구했던 품격과 예술에 대한 의지를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전람회의 그림'의 엄청난 에너지와 노거장의 불꽃 투혼도 결코 잊을 수 없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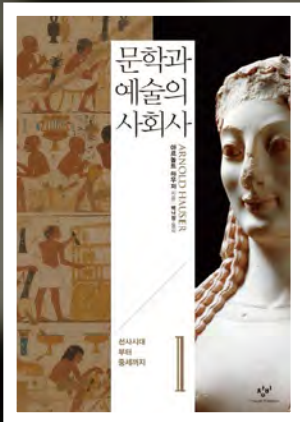
❖ 예술 판독기



반이정 지음 / 미메시스 / 360p / 2만2천원

미술평론가 반이정 씨가 지난 5년 간 영화 잡지 <씨네21>에서 연재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책으로 나왔다. 저자는 무언가를 예술로 만드는 조건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아 <예술 판독기>라는 제목을 정했다.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할까. 대체로 예술은 구분이 되지만, 상투적인 외관과 식상한 메시지를 담은 예술도 많다. 그리고 예술이 아니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각인되는 현상도 있다. 이런 까닭에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예술이 원래 어렵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저자는 예술의 근본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철학을 문자가 아닌 다른 형태를 빌려 전달하는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는 기준은 정의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의 담론을 주제로 하여 탄생하는 것이다. 작가는 예술과 현실을 구분하는 완고한 기준을 깨고 예술에서 현실성을 보고 현실에서 예술성을 찾아내려는 의도를 책에 담았다. 주변의 시각 정보를 유심히 판독하는 훈련은 예술을 판독하는 훈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영화, 광고, 상품 등에서 대상을 찾고 그들로부터 예술됨을 읽어낸 책이다.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4)



아르놀트 하우저 지음, 백낙청 옮김 / 창비 / 450p 내외 / 각 1만8천원

전세계 지식인들에게 인문교양 필독서로 사랑받아 온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전 4권이 500점에 달하는 컬러도판을 수록한 개정판으로 다시 선보인다. 헝가리 태생으로 20세기를 빛낸 지성인 아르놀트 하우저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대중영화의 시대까지, 인간과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예술이 시대와 사회가 빛어낸 산물이라는 '예술사회학'의 관점을 선구적으로 펼쳤으며, 1951년 영문판으로 첫 출간한 후 지금까지 20여개 언어로 번역됐다. 한국에 처음 소개된 지만 50년을 맞아 두 번째로 개정판이 나왔다. 예술사학의 도도한 지평에 '사회사로서의 예술사'라는 새로운 축을 그어 넣음으로써 정신사가 갖는 주관주의적 한계와 양식사의 어쩔 수 없는 형식주의적 공허함을 동시에 뛰어넘게 했다. 예술사의 새로운 단층들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그 층위들에서, 한 예술작품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감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카를 만하임은 "이것은 늦가을의 풍성한 수확이다"라고 격찬한 바 있다. 예술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나 예술에 대한 인문주의적 교양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 살맛 나는 한국인의 문화



정경조 · 정수현 지음 / 삼인 / 296p / 1만2천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매일의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울음과 웃음, 좌절과 환희, 슬픔과 기쁨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해 삶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5천 년의 무구한 역사를 이어 왔다. 우리 민족에게는 '신명'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이 책에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명'이다. 신명은 '흥겨운 신이나 멋'으로 정의되는 순우리말이다. <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를 함께 쓴 정경조, 정수현 두 저자가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 쓴 세 번째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살 판', '놀 판', '뭉 판'이라는 제목 아래 삶이라는 무대를 펼치고, 그 '판' 위에서 벌어지는 우리네 인생을 담았다. 제목에서 사용한 '살맛'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란 의욕을 말한다. '살'이란 어근은 '살다', '살아가다'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인 인생, 즉 '삶'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우리 민족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신명을 냈는지, 그 근본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밝혀 나간다. 한국인의 흥미로운 생활상, 나아가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책이다.



NEWS

부산시립예술단 뉴질랜드 '2016 오클랜드 한인의 날', 독일 '2016 한인의 날' 참가



부산시립예술단이 우리문화의 멋과 흥을 알리는 문화예술사절단으로 뉴질랜드와 독일을 찾는다.

우선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과 뉴질랜드 오클랜드市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16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3월 30일 뉴질랜드로 출발한다. 4월 2일 오후 2시 오클랜드 노스쇼어 이벤트센터에서 펼쳐지는 '2016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우리춤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로 구성된 예술단 공연팀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2016 한인의 날-신비한 한국' 행사에 초청받아 독일로 떠난다. 예술단 공연팀은 4월 3일 오후 3시 개막식이 열리는 함부르크 민속학박물관에서 개막공연 및 두 차례 초청공연을 가진 후 4월 5일과 6일 함부르크 음악대학에서 함부르크 음악대학과 합동공연을 펼치며 폐막일인 8일에는 개막식이 열렸던 민속학박물관에서 폐막공연과 한 차례 공연을 더 가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부산시립예술단과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2016년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 단원 모집공고

1. 모집개요

모집부문 및 인원		실기 전형과목	
무용단원 총 4명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무용(3~4분 이내) 의상 : 자유복 (제한 없음) 음악 : 본인 준비(반드시 CD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흥(2~4분 이내) 의상 : 자유복(제한 없음) 음악 : 전형 당일 무용단이 준비한 음악 제시

2. 응시자격

- 학력 제한 없이 시립무용단원으로서의 실력을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성의 경우) ※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비상임 단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는 응시불가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화) ~ 4. 7(금) 17:00까지(5일 간,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은 등기로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접수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팀(☎051-607-6046) (우 48534)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공연팀

4.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자유양식),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필), 학력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해 공증 제출), 경력증명서(제출 희망자) ※ 초본 및 증명서는 모두 원본 제출
 ※세부 전형일정 등 반드시 접수 전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5.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팀(☎051-607-6046)

2016 부산오페라 Week

참가 지원 공고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즈음하여 2016 부산오페라 Week 참가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오페라단의 지원·육성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제 목 : 2016 부산오페라 Week
일 시 : 2016년 12월 중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지역 내 전문공연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지역 내 전문공연장

· 2016 부산오페라 Week 선정 방향

작품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오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 지원자격(공통사항)

1. 임의단체로 설립된 오페라단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이 부산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 단체
3. 최근 5년 이내 전문공연장에서 오페라 제작 및 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제작비 일부 지원

구 분	예산지원(안)
오페라 전막	100,000천원
오페라 인 콘서트	50,000천원
오페라 갈라 콘서트	30,000천원

- 홍보 지원 (통합 홍보 : TV-SOPT 송출, 가로등 배너)
- 공연장별로 복수지원 가능하나 1개 단체, 1개 사업 선정·지원을 원칙으로 함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17:00 까지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2층 공연팀

· 제출서류

1. 공동 제출
 - ① 지원서 양식 1부 (첨부파일 참고)
 - ②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공연프로그램(안) 5부

2. 선택 제출
언론보도자료(안), 홍보인쇄물(안), 사진자료 등

· 결과발표

- 최종발표 : 2016년 4월 중(예정)
- 결과발표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란 공지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부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지원사업 공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비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2016년 공모사업에 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에 이어 3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2014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서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 프로그램을 기획, 처음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산문화회관은 '얼씨구樂'의 높은 호응을 계기로, 지난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에 2개 프로그램을 신청,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전개해왔다. 올해 3회차를 맞는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은 4인이 한팀을 이루어 우리 국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 강습, 소금 강습,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감상, 고령 가야금체험 투어 등 총 16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립극단이 진행하는 '연극아! 같이 놀자!'는 부산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연극체험을 통해 자아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게임, 감상 등을 통해 연극과 친숙해질 수 있는 감상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동요를 다양한 장르와 연계해 불러보며 우리 동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 '연극아! 같이 놀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 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 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운영기간 : 2016.4~11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국제회의장 등

교육 일정 및 모집 안내

● 토요오감놀이터 '얼씨구樂'

사업기간 : 4월~11월(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토요일 오전 10:00~12:00
 개 강 : 상반기 4월 9일, 하반기 8월 13일
 모집일정 : 상반기 4월 1일(금)~4월 7일(목) / 하반기 8월 1일(월)~8월 10일(수)
 모집인원 : 상, 하반기 각 20팀(가족, 친구, 지인 4인 1팀 구성, 단 자녀는 초등 이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아! 같이 놀자!'

사업기간 : 4월~11월(1기당 4주 교육, 총 5기 운영) 토요일 오전 10:00~13:00
 모집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중학생 기수별 40명
 프로그램 : 연극과 만나기(자기소개하기, 연극 이해하기), 연극과 친해지기, 연극과 놀기(관찰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 만들기(토론연극, 대본만들기, 연기하기), 연극 체험하기(시립극단, 또는 부산지역 극단 공연 관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사업기간 : 4월~11월(1기당 4주 교육, 총 5기 운영) 토요일 오전 10:00~13:00
 모집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기수별 50명(학부모 참가는 선택)
 프로그램 :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작곡가와와의 만남 등

	교육일정	모집일정	비고
1기	4.16, 4.23, 4.30, 5.7	4.1(금)~4.14(목)	연극아 같이 놀자, 교과서 동요여행 공통 일정 ※모든 강좌는 선착순 모집
2기	5.21, 5.28, 6.4, 6.11	5.2(월)~5.19(목)	
3기	6.25, 7.2, 7.9, 7.16	6.7(화)~6.23(목)	
4기	9.24, 10.1, 10.8, 10.15	9.5(월)~9.22(목)	
5기	10.29, 11.5, 11.12, 11.19	10.10(월)~10.26(목)	

부산문화회관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악

2016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일감놀이터-얼씨구악'이 2016년에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우리 국악기를 만들고 배우면서 소통하는
오감만족 놀이터 '얼씨구악'의 즐거운 난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영기간	2016년 4월 ~ 11월(상반기 15강, 하반기 15강)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2:00 •장소 :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모집인원	4인이 1팀 구성, 총 20팀 선착순 모집 ※ 팀 구성은 학생을 둔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구성 (예, 초등자녀를 둔 4인 가족, 초등자녀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 가족, 두 친구 가족 등)
신청기간	상반기 4월 1일(금) ~ 4월 7일(목) 하반기 8월 1일(월) ~ 8월 10일(수)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선착순 접수
교육강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전학수, 장미진, 조은경, 이미숙), 특별강사(김한동, 오중수)
수강료	무료(일부 재료비 별도)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4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말하오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빈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 **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ALUMINUM

꽃 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The Best Service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www.crown.co.kr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
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윌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15(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

또 하나의 치유를 위하여

PROGRAM

Requiem in D minor K.626
W. A. Mozart

비누방울

고은하 작사, 임채일 작곡, 최석태 편곡



Soprano 김민지



Alto 정은영



Tenor 이은민



Bass 김정대



특별출연
수석지휘자

출연단체
수석지휘자 전상철

부산시립합창단 /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6. 4. 16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051) 607-3108 / 공연운영팀 051)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서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자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입장료. 무료(전석 초대)

Classic Jazz

클래식 재즈를 품다

2016. 4. 22. | 금 |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해설 도병찬



지휘 김병수



재즈가수 위나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코베와 함께 떠나는 일본 여행



후쿠오카 자유여행

왕복승선권
코비+호텔

1인 80,000원 부터~
1박 2일 1인 139,000원 부터~
2박 3일 1인 179,000원 부터~

대마도 자유여행

왕복승선권
코비+호텔

1인 69,000원 부터~
1박 2일 1인 145,000원 부터~

※ 주중출발기준 ※ 불포함 사항 : 유류세, 부두세/개인경비

9 10 11 12 1

SHOSTAKOVICH • RACHMANINOFF • KHACHATURIAN • RIMSKY-KORSAKOV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 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Ⅱ

러시아 음악 여행

그 두 번째 여정

PROGRAM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中 제1악장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中 아다지오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中 제4악장

2016. 4.29 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윤승업



피아노 이주은



해설 및 진행 정희정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찬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

문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균일 10,000원 (*지정좌석제)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할인 (전화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 (인터넷 예매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단체 (10명 이상) ※ 학생단체 (3,000원권) ▶ 전화문의